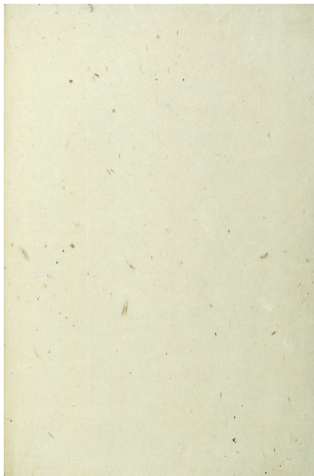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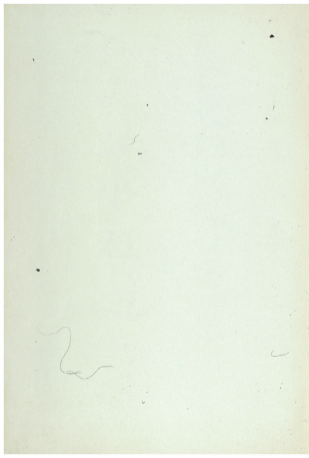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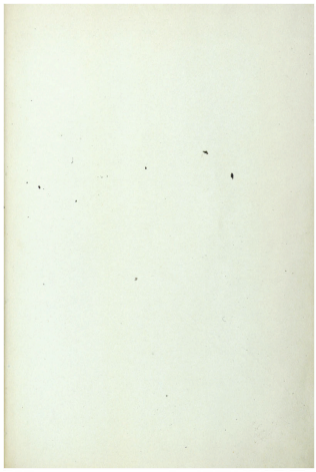


天路歷程
乾

186
1







天路歷程
乾

一八九四年元山板
奇一譯



吉 186

1

1

스모호기를쥬리고목말은것곳치복이장초크리
로다불상호다그썰은세상빛출보지못호매쥬소
등디호엿스니선성의친구는님군이금호지안코
특별히허호여준성경과그썰이라선성의가세가
반한호고썰도아주는이업스매옷감을싸셔호구
지척을호며이척상하권을지엿스니선성의옥에
갓치지아니호엿스면이척이엇자세상에퍼젧스
리오이거시하느님서셔번별씨의독실호므음과
정성을드러내샤이후이척보는사를들노호여금
밋는디유익호게호심이아니냐몬
을괴록호고척대저는아래괴록호고라
성의소적

이척상하천은신구약리치를가지고일판을다비
스로저엿스니가위도리를통달한성도이라하리
로다그저미잇는곳을보면과괴묘묘하고그업호
곳을보면참송구하도다사람이엇더케참도리를
밋는것과또엇더케예수를아는것과또엇더케전
력을주시는것과또엇더케삼가직히는거슬쇼쇼
히나라내엿스니이거시련로로가는디첩경이라
사람의일함과사일함은참으로잇는거시아니라
명목만빌어다가일함을지엿스디천한사람의일
함은천하게지코악한사람의일함은악하게지코
조흔사일함은조케지코홍한사일함은홍하게지

옛스니이척보는벗님네는일흠을보고삿솔생각
하읍소서첫비두에내라호삿손번연씨가저기를
ㄹ르친삿시오쿨형은옥을ㄹ르친삿시오똥은ㄹ
만히생각하느거솔ㄹ르친삿시오제집을등지고
도라섯단말은이세상사와서로등젓단말아오히
여진웃손더러온세상을ㄹ르친삿시오점은죄를
ㄹ르친삿시내대져밋는사름은이척을보고키키
철철히탄복하려니와밋지아니하느사름이나후
러치를아지못하느사름은뉘이가업는말이라하
스나대강요긴호삿솔불렸스니밋는이늘여척을

보소서

구세쥬강성일천팔백구십사년원산성회귀일서

요한

모이

사름의 일홈이라

천도 도를 전하노 뜻시라

고집 고집스럽단말이라

이철 덕음이 쥬장업노 뜻시라

괴독도 괴독의테저라하노 뜻시라

은조 도아주노 뜻시라

세지 지혜잇단말이라

시법 법을 밋노다노 뜻시라

습례 례법낙단말이라

인조 어진 뜻시라

호사 사름을 씨 닷게 하노 뜻시라

급육 욕심만 다는 뜻시라

인티 참논 뜻시라

우뭇 어리석다논 뜻시라

히타 게으르다논 뜻시라

즈시 께뭇옴만 밋논 단말이라

위션 거젓착호례호논 뜻시라

심경 놀난다호논 뜻시라

회의 의심만 혼 뜻시라

경성 사름을 일션다호논 뜻시라

근신 부즈런하다논 뜻시라

현저 착호 뜻시라

견견
굿게 밋느 뜻시라
나위 나위서

인의
사랑하느 뜻시라

진충
충성스러 온 뜻시라

랑부
노느 계 집이라느 뜻시라

인구성
고약하성 품이라느 뜻시라

호식
어엿부다느 말이라

람리
리롤람하느 뜻시라

고명
일흠느 뜻시라

란족
사름을 어지럽게하느 뜻시라

교오
교만하느 뜻시라

조고
스스로 좁흔데하느 뜻시라

과부

자랑하느 뜻시라

치션

붓그러운 뜻시라

순도

말만하느 뜻시라

능언

말이 능하느 뜻시라

오션

착하일실여하느 뜻시라

질투

쇠기하느 뜻시라

스키

귀신섬기느 뜻시라

조에

조치아느 것만 말하느 뜻시라

샤화

샤치하느 뜻시라

음일

음란하느 뜻시라

오만

오만하느 뜻시라

방리 리 조화호는 뜻시라

람장 옥심만 혼 뜻시라

밍심 덕음이 어 두 온 뜻시라

기션 착호일브리는 뜻시라

익원 원망호는 뜻시라

기욕 욕심잇다논 뜻시라

즈스 방저호 뜻시라

급한 몹시구논 뜻시라

고오 도고호 뜻시라

원투 원슈짓기 조화호는 뜻시라

성황 거짓말호는 뜻시라

잔인 모진 뜻시라

오광 빛슬시려흐느 뜻시라

장훈 길이흐흐느 뜻시라

미도 리만취흐느 뜻시라

교언 공교훈말이라

거변 세샹물정을싸룬다훈이라

취시 시레단싸르느 뜻시라

령식 압간가리느 뜻시라

슈화 화평훈뜻시라

구가 다올라흐느 뜻시라

빅설 말잘흐느 뜻시라

첨유

아첨하느 뜻시라

거지

부자라하느 뜻시라

기금

금을조화하느 뜻시라

견련

련석호뜻시라

어리

라취하느말이라

저시

스스로밋느다하느 뜻시라

절망

홀수업다느 뜻시라

불신

밋지안느 뜻시라

지식

지식이잇다하느 뜻시라

련달

만이련달호뜻시라

근슈

삼가지하느 뜻시라

성실

진실흔거슬가르친뜻시라

무지

모르느뜻시라

비도

도롤비반흐느뜻시라

쇼신

밋음이적은사름이라

심형

형형스러온뜻시라

나지

막음약흔뜻시라

의심

의심잇느뜻시라

죄고

죄잇느뜻시라

송은

은혜놉히느뜻시라

독신

밋느뜻시라

잠심

잠간밋느뜻시라

후한조 고약훈민음먹는사람이라

목무련 허무하다느낏시라

반구 도로제버릇하느낏시라

석신 몸외기느낏시라 몸외기느낏시라

허망 허망훈뜻시라 허망훈뜻시라

싸일흙이라

장망성 장춧멸망홀뜻시라

우올리 거정모아넛는구덩이라

속정부 정육에붓튼마을이라

슈힐촌 힐실다논마을이라

어모 업수히넛이논거슬말논뜻시라

허영 헛된영화가르친뜻시라

간난산 리우어려온산이라

위험 미우위험홀뜻시라

패망 망홀곳시라

미궁 조흔집이라

락산

질거온산이라

겸겸

겸손흐느뿃시라

음예

침침흔데라

흔미향

흔미흔마을이라

평론

평론흐느데라

허화시

물건과느저즈라

표언향

공교흔말만흐느데라

탐심부

탐심만흔데라

호리촌

호리를닷토느촌이라

안일

평안흔것조화흐느데라

지산

지풀이단흔데라

방경 두갈내길이라

최문 목척문이라

의척 악훈싸더경이라

이단 이단을가르친뜻시라

경계 경계흐는뜻시라

형경 정치조훈뜻시라

미과 경신희미흐다는뜻시라

즈만 그만흐야도족흐다는뜻시라

괴신향 밋는막음버리는뜻시라

살경 죽기쉬운더경이라

도신향 독실밋는마을이라

련로력명친지상

화설이라버가련하널흔들노구경돈나다가호곳
에니르매근호지라호굴형을차져드러가누어자
다가살을꾸니호사름이해여진옷슬넘고호곳에
서제집을등지고도라서서손에호척을쥐고등에
무거온짐을지고그척을넘을새에올며설며슬허
하다가견디지못하야크게불너골으딘엇더케하
랴하고근심하노모양으로잡에도라오매그쳐조
들은웨근심하노자아지못하노지라제걱정이점
점더하매참지못하야말하며탄식하야골으딘내
사랑하노쳐조들이버몸에근심을젖스매장차죽

을 거시오 우리사노성도련화에살와질거슬너가
명녕아노니이런지양을맛나면우리가도모지멸
망함을면치못홀터이니엇저홀고만일성명길호
나홀예비치아나호면능히괴홀수업스나사노길
이잇는지업는지말홀수업노라호니그가속이리
우놀나고두려워호나그말을밋지아나호고밋친
즐노알아싱각호디자고셔면아춤에나모음이
홀사호야급히침방으로보내니밤에도낮파곳치
걱정호며호잠도자지못호고걱정호며올더니아
춤이되매쳐갓가드러와엇더호냐못거놀디답호
디걱정홀수룩더걱정스렵다호고다시그말을련

하야 하느니라 가속이 생각 하디 열나면 더 홀터이
오몹시 골면 밋친 거시 나 홀사 하야 후쵸 룡도 하며
후척망도 하다가 버려 두고 상 관치 아니 하니 혼지
그쳐 저를 위 하야 기도 하녀 불상히 념이 고 또 제 몸
을 위 하야 걱정 하디 라 또 홀노 밧 흐로도 니며 기도
하야 이러케 몇칠을 지별서 걱정을 굿치 지 아니 하
고 칙불새 마다 후울며 후크게 웨쳐 끝으 디 내 가 었
지 하 여야 구원을 었으 라 하며 다 라 날 뜻시 잇섯이
리 저 리 도라 보나 어 디로 갈년 지 몰나 방 황 하디 니
전 도라 하느사 롬이 와셔 보고 무려 끝으 디 웨우는
나 디 답 하디 배 손에 든 칙을 보매 내 가 죽을 죄를 지

외도도가던도의게
도리를밧다



엇스니 죽은 후에 심판을 밧을지라 내가 죽기도 원
치 아니하노고 심판함도 밧지 아니코져하노라 전도
ㅣ 곧 으 디네 살기 어려오면 엇지 하야 죽기를 원치
아니하느냐 디답하 디네 등에 잇는 짐이 나를 죽게
흐련아니라 나를 더욱에 싸지게 할마 두려워하느
이다 옥에 가치는 것도 잠시 피로움을 견디기 어렵
거든 흘리며 더욱에 싸지는 심판을 엇지 참아 밧으
릿가 이런 일을 생각하노고 우느이다 전도ㅣ 곧 으 디
네이 처럼 생각하면 엇지 하야 여괴섯느냐 디답하
디어 디로 갈년지아지 못하겠습느이다 전도가 책
흐천을 주거늘 저세히보니 장리화를 피하야 다라

나라흐말이어늘전도드려공순히무려골으디어
타로다라나오릿가전도가손을들어ㄹ르쳐골으
디저괴저밧넘어흐좁은문을보느냐디답흐디뵈
이지아나흐느냐이다전도ㅣ골으디저괴밧희는거
스뵈이느냐디답흐디어렴풋시뵈이느냐이다천도
ㅣ골으디저밧솔브라보며그리로가면좁은문이
잇스리니그문을두드리면내가엇더케흐거솔ㄹ
르쳐줄사름이잇스리라흐거늘이말을듯고다라
날시거괴셔제집이멀지아나흐지라그쳐자들
보고크게볼너도로오라흐되손으로키를막고다
라나며크게볼너ㄹ으디성명이요진하니라성명

可謂則不歸也
段十五



이요긴하니라 하며 도라보지안코 별관가온디를
향하고 다라날서리웃사름들이나아와보고혹흥
도보며혹놀내기도하며혹부르기도하고그중에
두어사름은말하디결단코강권하야도로오게하
리라하니하사름의일홈은고집이오하사름의일
홈은이천이러라셔난사름이별셔멀니갓는지라
두사름이결단코싸르갈셔얼마아니가석밋혔는
지라도라보며큰으디리웃사름들아무슴일노왔
느냐두사름이디답하디너를천하야다리고가자
고왔노라큰으디가기를원하지아니하노라나도
너희사노장망성에셔났거니와그성이조만간류

황과 불노살음이 될지라 너희가 만일 오래 거 괴셔
살면 죽을 거시니 나와 곳치가 자하니 고집이 무지
져 곧으 디 친호 벗과 쾌락호 일을 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는 나하 더라 가는 사람의 일홈은 괴독도 一라
디 답하 디 너 말하 는 거 손 다 나 구하 는 복에 비하 면
만 분지 일도 쓰 르지 못하 리라 너희도 나와 곳치가
면 나와 곳치 평안하 리니 나가 는 곳은 복록이 족하
고 사 람을 사랑하 는니 함께 가서 시험하 야 보자 고
집이 곧으 디 네가 세상에 쾌락호 일을 버리고 무엇
슬 구하 라 는나 괴독도 一 곧으 디 상하 지 아니하 고
더럽지 아니하 고 외하 지 아니하 는 괴업을 띤 당에

두엇스대근실히구호는자논싸가니르면엇으라
니네척을보면알니라고집이존으디엇진말이나
네척을볼것업다우리와코치도라가자귀독도
디답호디가지아니호겟노라내손에임의밧가는
연장을잡앗스니몸을도리키지못호겟노라호거
놀고집이이천드려널으디저사름을브라고집으
로도라가자저런밧친놈이공연이저만잘났다호
너누가셔르가겟느냐이천이존으디욕호지마라
만일귀독도의말이참되면저구호는거시우리보
다더조흔리니내나저사름과코치갈싸보다고집
이존으디너르지밧혔느냐저런밧친놈이너를어

뒤로 인도할지 누가 아느냐 도로가 자할거늘 괴독
도 이 천드려 낼으 뒤 나를 따르오라 내가 말하복
록이 진실 노잇는 거시오 이 밤 괴더 조흔 영화가 또
잇스니 만일 내 말을 밋지 안커든 이 책을 보라 이 책
에 기록할 거시 참된 거시 니 이 책 지은 이가 당신 괴
로 증거 할섯는 니라 하니 이 천이 고집드려 말하대
내가 뜻슬 작덩하엿스니 이 조흔 사름과 못치가셔
들며 쓴 거슬 할가 지로 할리 하하 고 괴독도 드려 낼
으 뒤 조흔 친구야 이 조흔 칠을 네가 아느냐 괴독도
이 큰으 뒤 천도라 하는 사름이 나를 따르치디 처압
희 좁은 문으로 가면 길을 따르칠 사름이 잇다 하더

고려도과이천을다리고
소집을리별한다



나라이천이 즐으디저괴셔우리와긱치작반홀사
롬은누구누구나괴독도ㅣ 즐으디여러련스들과
긱치잇스리니그밧치눈을부시게긱고쑤우리보
담몬져간천천만만성도들이괴차해롭개홀이업
고서로사랑긱며거룩홀풍치가름름긱야각각하
느님씨뵈옵고홍상그압희서셔은총을누리느니
금관쓴쟝로들이며금거문고타느녀도들이며쥬
를사랑긱며명령을순종긱다가세상의셔목버혀
죽은이와불에살화죽은이와증성의게물녀죽은
이와물에싸져죽은이와제명에죽은병도들이다
지금까지평안긱야영성홀복납기를웃납듯긱느

나라이천이콜으디이말이족히사름의口음을감
동케흐는도다이여러가지복을진정엇겝는냐엇
지흐면엇으랴괴독도ㅣ디답흐디그나라차지흐
신쥬씨셔척에괴록흐야말슴흐엇스디만일우리
가참으로그복을구흐면口음대로우러를주시리
라흐섯는나라이천이콜으디네조흔친구야이말
드룬거슬미우깃거흐노라밭비가자흐디괴독도
ㅣ콜으디나논셀니가고시푸나내등에잇는잠서
등에셀니갈수업노라흐고별관가온디진흙싸힌
곳에너르니그쌍일흙은우울니라별안간들다구
덩이에싸져동쿨어원몸에진흙이뭇어논지라괴

의독도가 유을너여싸졌는데
은조카구원할타



독도는 동에 짐이 무거워 짐히 짐졌더라 이천이 그
독도드러날너른으디 지금은 엇지 하자는나 괴독
도나 큰으디 모로갓다 이천이 성내여 큰으디 이거
시종일날드러말하던복이나 우리가 셔나 셔처음
브러이런일을 당하니 더가면나 종에 쓰무슴일을
당홀년지 모로갓스니 셔쳐나아간 후에 다시 조흔
곳시잇슬지라도 나는가지아니 하갓노라 하고 제
집잇는편을 향하야의쓰고 힘써진흙싸힌곳에서
셔쳐나아와도로가매 다시 퇴이지아니 하논지라
괴독도는 혼저우을니에 싸섯스되 제집을 생각지
아니 하고 좁은문잇는편을 향하야의쓰고 힘쓰되

등에 짐이 있셔나아 팔수업터니은 조라흐는사름
이와셔 무르디여괴셔무엇흐는나타답흐디전도
가나를분부흐야아리로향흐야저괴좁은문으로
가면장리형벌을피흐리라흐매그리로가다가여
괴빠졌슴는이다은조ㅣ꼴으디네웨징검드리를
보지못흐는나타답흐디내마음이무셔위급하다
라나다가빠졌슴는이다은조꼴으디네손을내여
보내라흐거늘손을주매살어내여마른쌍에세우
고다시가게흐니라괴독도ㅣ은조압희가셔무려
꼴으디이곳소장망성에서좁은문으로향흐야가
는갈이어늘웨형인이둔니기조케못치아니하

나냐은조이디답하디이진흙쌍은곳치지못할곳
시라거품씻기와더러온거시홍상흔녀드러가는
거시사름의죄가나타나논것又흔교로우울너라
하나원리죄인이스스로죽을줄을세다라너러
나논근심과의심과경황이모도모혀이리로드러
가매악흐쌍이되엿스나이러케악흐거시쥬의뜻
대로하신거시아나라원리쥬의하인이감독의직
분을맛하일천팔백여년을여기셔일흔적에각쳐
에셔옴겨오논물건을수빅만짐이나던젧스되메
이지못하엿스나던진거손교훈이라식견잇는사
름이말하디이우울나논아모리하여도업시흔수

업는고로쥬셔셔명하샤진흙속에튼튼호정검드
리롤노앗스나날호리고비을세에는더러온흙이
스면으로흘녀드러넘치매정검드리롤보기어렵
고혹뵈기노하야도현괴중이나셔발을헛디디면
원몸이싸지논거슬버셔날수업고좁은문에드러
간후에야쌍이강강하여진다하엿느니라하더라
이천이제집으로도라가매리웃사람들이와셔보
고혹은말하디잘도라와다고도하며혹은말하디
과독도롤싸르위티흔거슬무릅쓰고갓던거시광
직이라고도하며혹은말하디담이적어질을셔낫
다가조고만어려온일에중도이폐하다하니이천

세지가 괴독도를
색이다



이모친좌중에서붓그려위머리롤들지못흐터니
그후에여려사름과又치의론흐며괴독도를홍보
터라그때에괴독도一가혼조가다가열니브라보
매엇터흐사름이밧슬지나오는지라공교히서로
맛나매그사름의일흠은세지라흐니속정부에잇
던사름이라그성이미우웅장흐터라괴독도의살
던장망성에셔머지가아니흐고로괴독도에셔는
온소분이이성에만퍼질뿐아니오또흐다른성에
도전과흐지라세지가란식흐며가는사름이괴독
도나졸알고무르디그디가이제수고로온모양으
로어디를가느냐흐니괴독도一디답흐디내가진

실노곤고흐사름이니이 생각에는나보다더곤고
흐사름은업슬뜻호지라나더려어디로가는나무
르시니내가말호리이다누가날드려저압희좁은
문으로가면짐을버스리라호기에그리로향호고
가는이다세지콜으디쳐저가잇는냐호니디답호
디잇지마는내짐々둘에전과로치흠씨질거위호
수가업스니업는셈이오이다세지콜으디내가
르칠말이잇스니내가듯것는냐디답호디조흔말
노권호사갓다호오니조흔말이면드르리이다세
지콜으디그려호면내가권호야그짐을셀니버셔
널리게호리라그렷치아니호면무음도평안치못

고하느님이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리라 괴독도
| 고투도 더내 구하느니라. 른 거시 아니라 이 짐을
버셔 버리고 견하느니라. 힘으로 버슬 수 업고 내고 향
에도 벗겨 줄 사름이 업기에 이 길 노가 셔 이 짐을 버
스랴 하느니라. 세지 고투도 더 누가 이 길 노가 면 버스리
라 하느니라. 더 답하느니 보기에 미우 점잔은 전도라 하
느사. 롬이 분부 하느니 다 세지 고투도 더 못될 말이다
세상 사름 가느니 길은 이려 케 험하고 괴롭고 어려 온
길이 업느니라. 만일 내 말을 밋으면 후에 올은 줄 셔
다 르리라. 내 가 보매 네가 우울네. 에 싸 져스니 이 길
노가 느더 이 거시 도로 혀 처음고 성이 아니라. 네가 너

보다나히더만흐니내말슬드르라저사롭의지로
흐는대로가면근고하며위티하며어두우며스망
흐는거시며과갈파치운것과잠성과관리가만
리라이거시참말이니여러사롭의증참이잇는
라엇지하야놈의말만밋고몸을앗기지아니
냐과독도이디답흐디내등에잇는집이그디말
는것보다더두려오니이짐만버슬디정이면이
길에서무슴고성을당흐던지상관업게녁이
갓노라세치즈으디짐잇는줄을처음에엇지
알았노디답흐디내손에든척을보고알
았노라세치즈으디그러흐리다어리
석은사롭은요망흐말을드르면

마음이 혼란하야 하나도 장부의 기운이 업셔 근심
하며 의심하야 험한 길 노가 매저드려 무엇슬 구하
노가 무려도 저도 아지 못하노도 다 괴독도 1골으
되나 구하노거슬 배가 아노니 무거운 짐을 버스면
편안하겠노라 세지골으되 평안함을 구하면 왜 험
한 길 노가 노내 말을 드르면 험한 길 노도 가지안
코 구원을 엿고 또 짐버슬 묘리를 2리 처리니 수고
만 덜뿐 아니라 도로 허평안하고 질거움을 엿을 거
시오 또 친구도 스피고 만스가 여의하리라 괴독도
1골으되 청컨되 2리 칠을 버라노이다 세지골으
되 슈행이라 하노 촌에서 법이라 하노 사람이 잇셔

미우충명하고 명성이잇서 그덕의 절로써 흔저 솔 벗
겨주논 저조가 잇셔 여러솔 구원하엿고 또 집에 놀
녀 밋친 것도 능히 곳치니 내말대로 시방가셔 보
면 구원을 엿으리라 그 집이여긔셔 불과이 삼리쯤
되니 어셔가라 만일 집에 업스면 그아돈 습례가 그
부친과 못치 잘 곳치리니 짐을 바스면 십분상과 할
거시오 못친 후에 집으로 도라가기 실커든 사름을
보내어 그덕가속을 슈형촌으로 다려오게하라 거
거시 방뵈집이 잇셔 세도싸고 쓰음식도 싸고 리웃
사름들도 다 충후하고 떼면이 잇셔 흠씨 살만하니
그리하면 더욱 평안하라 귀독도 이 말을 듯고

쥬의를 물뎡치 못하야 헤아리디만 일이 말이 참되면
그대로 하느 것만 못하디 못하다 하고 무려 존으디 그
사름의 집을 어 디로 가느 냐 세지 존으디 저기셔 너
산이라 하느 좁흔 산을 보느 냐 디 답하디 십분 명백
히 보느 이다 세지 존으디 저 산 아래로 가면 첫지 집
이그 사름의 집이니라 괴독도 | 가던 길을 버리고
시범의 집을 찾거 갈서 구원을 엇고 저하야 산압히
너르러 쳐다보느 냐 악히 좁흔 디 아래 우가 굽은 듯
흐지라 괴독도 | 생각에 이 산이 문혀지면 일신이
바셔 질싸 하야 무셔 위터 가지 못하 고 진되 량난 중
짐도 점점 더 무거 위으며 산에서 화광이니 려 나매

관동도가 길은 일한 듯
전도 가다 시키고 허마



그 불길 이 내 몸에 밋찰사 하야 두려워 일신에 찬삼
이 흠으논 지라 이제야 세지의 말드룬 거슬 후회
흠에 전도 오논 거슬 보고 붓그려 위하니 전도가 갓
가히와셔 엄속한 모양으로 보며 무려 졸으디엇지
하야 여괴왔나야 괴독도 디답 할말이 업셔 짐
짐히섯논 지라 전도 졸으디 장망성 밧기셔 방성대
곡하던 사람이 네가 아니야 디답하디 그려하외다
전도 졸으디 내가 짐은 문으로 가논 길을 르치
지아니 하더냐 디답하디 르치섯는 이다 전도
졸으디 알앗스면 왜 정로를 버리고 다른 길 노가
냐 디답하디 내가 우을니 룰 지나 주사하사 례를 밧

나니나를컨하디저압마을에짐벗겨줄사름이잇
스니밧비츠져가라하디이다전도—글으디그사
름이엇디하디냐디담하디보기에논유식훈사름
곳흔디여러가지조흔말을하개그말을듯고여기
왔스오나이산이높고속웃하때분히지면치여죽
을싸하야감히지다가저못하니이다쓰무르디그
사름이무슴말하디냐디담하디그리로츠져가보
면알니라하디이다쓰무르디무슴말하디냐디담
하디가속이잇느냐하기에잇자마논내능에짐이
무거온스름에전파곳치저희들과함여질거위흐
수업노라하엿는이다쓰무르디쓰무슴말하디냐

디답하디날드려짐을셀니버셔브리라하기에내
가디답하디이거슬버스면편안하깃눈고로좁은
문을차져가느니거거간즉잠버슬묘리룰마르칠
사름이잇노라하디그사름이곧으디너드려가라
하던길처럼멀지도안코험하지도안코가기조흔
길이잇스니그리간즉짐벗겨줄사름의집을보리
라하기로그말을밋고짐을속히벗고평안하사하
야정로를브리고이리왔스오나이런광경을보고
무셔워지나가지못하고엿지흔지모로니이다견
도이곧으디여괴잠안섯스면하느님의말씀으로
네게마르치리라하디괴독도이열며섯더니전도

1. 곧으디 성경말씀에 하시기를 주의 명령을 거스
리지 못하시니라 세상에셔 명을 거스림도 형벌
을 면치 못하시니라 세상에 계신 주의 명령
심을 거스리면 엇지 형벌을 도망하시오랴 고
성경에 날뵈시디 의잇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일도를 비반하시면 내가 갓거하시니
안노라 하시니 나라하시며 너 곧으디 내가 주의 명령을 거
역하고 정도를 버리고 위험하시므로 오니 더욱에
싸질자 하시노라 하시디 귀독도 1. 귀절하시며 크게 불너
곧으디 내가 죄를 범하고로 화가 밋쳤다 하시니 전도
1. 손을 잡고 말하시디 성경에 무삼 죄악이던지 다 사

흐수잇다흐신말슴도잇고또잇고의심치말나흐
신말슴도잇는니라흐디괴독도다시점점씨다
라쳐음긋치전도압희서셜며섯거놀전도ㅣ또닐
녀꼴으디배가리치를풀어더마르치리니명심호
고닛지말나녀를씨여혹하게흐던사름은누구며
가셔보랴던사름은누군지아느냐씨여혹하게흐
던사름의일흠은세지나이러케알흠지은거시오
흔지라세상일만싱각흐야항실을닥그면덕을씻
논공부만호고죄를속흐며영혼구호논도리논질
겨듯지아니호고테도만올흔줄알고놈의혐의를
상판치아니호며놈의거스림을순히호랴논스욕

만잇셔쥬의정도를요란케하고져하니네게마르
치던말이다고약하도록다정도를비리고죽을길노
인도하야드러가게하엿스니첫지느너를악한길
노인도함이고약하고돌지느너도그사름의말드
른거슬한하라네가이러케하거시세상사름의뜻
슬순종함이오하는님의명령을비반함이니라쥬
의말슴에힘을다하야좁은문으로도드러가라하섯
스니이거스배가너드러가라하던문이라사름을
인도하여영성하느디나르케하느고로길도좁고
문도좁고더위잡는사름이업느니라이악한사름
이너를정로를비리게하며좁은문으로가지못하

게 하 고 힘 호 길 을 마 르 쳐 과 망 케 하 였 스 니 씨 던 사
롬 을 원 망 하 고 회 파 자 칩 흘 거 시 오 테 이 는 그 사 롬
이 십 자 가 롬 힘 써 버 리 게 흠 을 한 흘 지 니 이 거 손 세
상 지 물 보 다 더 귀 호 거 시 라 또 영 광 잇 는 주 씨 셔 일
즉 널 으 샤 디 생 명 을 의 석 하 는 자 는 도 로 혀 생 명 을
일 는 니 라 하 셧 고 또 쥘 으 샤 디 사 롬 이 나 스 랑 하 기
를 부 모 와 형 테 와 처 자 와 누 의 와 또 제 생 명 보 다 더
스 랑 하 지 아 니 하 면 나 의 테 자 되 지 못 하 리 라 하 셧
는 고 로 네 회 리 하 야 그 사 롬 이 너 를 힘 써 쥘 하 야 신
고 케 하 며 쥬 의 테 자 되 지 못 하 게 하 던 거 슬 한 흘 거
시 오 테 삼 은 죽 을 길 노 인 도 하 야 드 러 가 게 흠 을 한

하라또네가보라던사름은누구며그사름이엇지
하야네짐을벗겨주리라하던거솔아냐생각하
야보라원리시법은풍에조식이라지금도셔니산
더경에셔살면셔저희조손이다종노릇하느니엇
지너를도아소원을일우게하겠느냐그런고로시
법이네짐을벗겨주지못하리니조고이리로법을
밋어짐벗는이가꼭이업느니라성경말씀에하시
기를법을만행하면사름이의리에합할수업스니
를법으로논샤하지못하리라하섯스니의에합하
지못하면엇지종할짐을버스리오세지느니세속사
름이라천국백성이아니오시법은속이논사름이

라그아들습례도외모는얌전흐나거짓착흐례흐
는사름이라너를도아줄수업느니내도를밋으라
그흔미흐사름의말을듯고정로를브리고영성흐
복을닐을번흐옛도다전도ㅣ이말을맛초고하늘
을향흐야크게불너곧으되이말을증참흐야주옵
소서흐되그새에서너산에서불이붓허너러나며
소리들너거늘괴독도ㅣ보며듯고미우두려워흐
니그말소리에흐옛스되를법으로흐는일은다죄
가온되작덩흐거시니라흐고또구약에널넛스되
를법을온전히직히지못흐는사름은망흐리라흐
옛느니라흐거늘괴독도ㅣ생각흐되죽을수받거

업다흐고 숨히 울며 졸으되 세지를 맞았던 것도 크게 불행한일이 오그 말을 경홀이 밋은 것도 다나의 어리석음이 라 하며 또 생각하되 저 사람의 말이 모도 소욕으로만 좃는 거슬 내가 미혹한야 정로를 보린 거시 티 우뭇그럽다흐고 다시 전도드려 무르되 내가 지금이라 도 정로로 도라가 좁은 문으로 가면 보랄 거시 잇스리 잇가 혹 거괴셔 막고 거 두어 주지 아니하면 도로 오기가 붓그럽지 아니하리 잇가 세지의게 혹 흠미근심시러 오나 죄를 샅하리 잇가 흠되 전도아 졸으되 네가 큰 죄악에 범한 거시 두가지 잇스니 조흔 길을 보림과 금한 길을 노감이 라 그러

피독도가 좁은 문에 다다른
바람이 열려 준다



나 좁은 문직히는 사롭은 사랑하노니 몸이 잇셔 밀
연거두리니 삼가 저런 길을 다 시형치 말나 쥬위셔
흐 번노히시면 네가 길에서 죽을사 두려워하노라
하더라 괴독도 | 정로로 향하거 놀전도 | 정답게
리 별한 며 평안하기를 빌더라 괴독도 | 좁히갈서
누구를 만나던지 말하지 아니하고 혹 누가 무려도
티 답지 아니하고 이전 잘 못흐일만 걱정하며 가다
가 좁은 문에 니르니 문우에 현관을 붓쳐서 티 문을
두드리면 열어 주리라 하엿거 놀클을 읊흐니 하엿

스 터

재망성애 살던 죄인
도망하여 나뉘도 아인

좁은 문을 두드리며
사롭은 길을 비라도 아

살구주의련 홀지심 노큰은혜물한양호니
살길술인도호배 노래소래놈했도다

호더라저근듯호야인저 1라호는사름이잇셔문
안에서무러스디누구며어디셔왓스며무어슬구
호느냐호니이사름은미우단정호사름이라과독
도 1디답호디나논짐을진불상호사름이라장망
성에서순산으로가셔장리형벌을피호고져호더
니맛참엇던사름이마르치디이문으로드러가라
호가에왓스니드러가게호겟슴느잇가디답호디
네가미우깃배호노라호고열어주거놀과독도드
러갈시인저가손으로솔며셀니드러오라호는자
라과독도 1무러쿨으디웨이처럼저축호시느잇

가인저 一 곧으디 여괴셔 강도 굴이 멀지 아니호지
라마 귀님 군살 단이 여러마 졸들 노이문을 직혀드
러오는 사롬을 화살노 쓰라호 매혹그 살에 마자 죽
으면 드러오지 못호는 나라 괴독도 一 곧으디 배이
말을 드르니 깃거운 중설너는 이다호고 급히드러
가니 인저 一 무러 곧으디 누가 이리로 가라 마르치
더냐 괴독도 一 곧으디 천도라호는 사롬이 날드려
이리가셔 문을 두드리면 엇더케 흘거슬 마르쳐 줄
사롬이 잇소리라호더 이다 인저 一 성경말씀으로
닐너 곧으디 네 압희 열닌문을 닷을 사롬이 업다호
섯는 나라호니 괴독도 一 곧으디 배가지금 천만다

인지가과독도물현성
길로러치다



이십삼

형이로소이다인저—결으되웨너만왔느냐괴득
도—되답하되리웃사름중하나도나와갓치위되
호줄아는사름이업셔셔르오지아니하되이다인
저—결으되그되오논줄아는사름은잇섯느냐되
답하되잇섯느이다처음에는네쳐저가보고도로
오라불넷고그후에는라웃사름들이도라오라불
넷스나내가손으로키를막고길만보고왔느이다
인저—결으되너를셔르오며도라가자권하던이
논업더냐되답하되잇스니고집과이천이라내가
그말을듯지아니하매고집이논욕하고도라가고
이천은나를셔르조곰오다가도로가더이다인저

三
金
根

1. 졸으되 그 사람이 오차오다가 웨셔러졌는나디
답하되 오차오다가 우을니에너르러그속에싸지
매이천은담락이적어더을미음이업셔제침잇는
편을향하고췌쳐나아가며날드려말하되조흔곳
시잇거든너흔즈가라하고저는제길노가고나는
이문으로왔는이다인저1. 졸으되가련하다이천
이여련당에잇는영광을구하다가엇지조고만고
란을전디지못하노요이러흔복을귀중히덕이지
아니하노도다하거늘귀독도1. 졸으되이천의실
정은말하엿스나내의실정을말할진디저보다난
거업스니저는제집으로갓거니와나는세지의말

을듯고 평로 풀 버리고 죽을길 노갓더이다 인지
| 풀으디네가세지 풀맛 낫스면너드려시범훈티가
서짐을버셔라고 천히지아니하더냐그사름들은
속이논사름들이니그말을드룬거지가석하도다
귀독도 | 풀으디처음에논시범을츠즈러가다가
그사름의집젓히간즉산이분혀져나를놀녀죽일
듯흐고로더가지아니하엿는이다 인지 | 풀으디
그산에셔여러사름어죽엇고어후에도만히죽으
리니네가치이여죽을거슬면흙이다형하도다귀
독도 | 풀으디네가거귀셔엇더깨될년지몰나근
심홀썬에요형하느님의은덕으로전도룰다시맛

낮스니 그러치아니호디면여기를수업고나의좌
에몸이산에치이어죽엇슬거시오쥬와흙외셔셔
말슬호치못흐번호엇스나나를이문으로드러오
게호시니감샤호여이다인저ㅣ곧으디아모던지
여기오기전에노왕스를거리외지아니호고거두
어주는니어리오라그디갈길을마르치리라호며
곧으디저압희좁은길을보느냐그길은그디갈길
이니거룩호신조상들과현지들과괴독외셔그스
도들을명호샤창설호길이라그길이미우바르니
그디노갈저어다괴독도ㅣ무려곧으디길모로는
사름이가다가잘못들길이업소오릿가인저ㅣ곧

이디이길뵈헐가면여러갈내잇스니곰으러지고
닐으나정로는곳고도좁으니그노그덕가분간하
야가라하디라기독도ㅣ등에잇는짐을벗지못하
고도아주노사름이업스미혼저버슬수업셔인저
드러벗겨주소셔하디인저ㅣ큰으디좁춤으라버
슬곳에니르면절노버셔지리라하거늘기독도ㅣ
허리춤을잡아미고가라하노지라인저ㅣ닐너큰
으디이문에셔얼마아나가면효시라하노사름에
접이잇스리니츠적가셔그문을두드러면극허조
흔일노마르치리라하거늘기독도ㅣ인저를하직
하고평안하기를축슈하니라기독도ㅣ효시의접

에니르러문을여러번두드리니이옥호야사람이
나아와누구나못거닐괴독도ㅣ디답흐디나는길
가는사룸일너니이집쥬인의벗시날드려말흐디
이집을츠적가면유익함이잇스리라흐기에쥬인
을보랴흐노라흐니그사룸이드러가셔쥬인세통
괴흐니조곰후에나아와무어슬구랴는가못거
닐괴독도ㅣ콜으디나는장망성에셔순산으로가
는사룸이라이길머리에잇는좁은문작히는쥬인
이날드려닐으디그디를츠적가보면길가는디유
익하고또조흔일노마르치리라흐기로왔는이다
흐디효시ㅣ콜으디드러오라내비게유익할거슬

마르치리라 하고 하인을 불너 초불을 켜라 하고 또
하인을 명하여 협실노인도 훈후에 훈문을 여니 엇
더 훈 사람의 화상이 결뵈는디 그 것히 금관을 돕히
결고 위상일을 등뒤에 두고 하늘을 쳐다 보며 손에
성경을 들고 밋는 법을 마르쳐 사람을 권하는 모양
으로 섰거늘 과독도 일흔이 거시 무슴 뜻시냐
효시 존으디 저 사람의 저 덕이 출중하매 하느님이
명하사 도리로 사람을 감화 식하게 하사 사람이 그
감화를 밋아 다시 살매 항상 감화 밋은 사람을 위로
하야 수고로움이 어미가 이 빈 것 같지라 그 것히
금관을 돕히 결고 위상일을 등뒤에 둔 거슨 주의 일

효시가 방쓰는디 물뿌리는리치로
괴동도물고로치다



을일심으로흐다가목전에군축박는것과슈모박
는거시신후에영광잇는상급박을징쥬인줄뵈여
알게흐이오하늘을쳐다보며손에성경을들고밋
는법을마르쳐천하는거스죄인들을진도의오묘
호리치롤마르치는직분을맛하손즉뜻솔풀어죄
인들을알게흐이니라네가이제현당으로가랴호
매길에서어려온곳시잇솔지라도그림카온디사
롬이쥬의천세로너를인도하야주겟기에먼저이
그림을뵈엇스너괴역하고뵈지말나길에서현로
롤그릇인도하는사롬을맛나죽을길노갈싸두려
워호노라호고괴독도의손을끌고대형으로올나

가매오래쓸지아니 할야몬지가 마득히싸혔는지
라괴독도 | 두루슬펴보더니 효시가 사름을 불너
쏟나 할는지라 쓸가를 시작할때에 몬지가 스면으
로 내려나니 괴독도 | 몬지에 숨이 막히게된지라
효시가 겹히선쳐녀드려물을 가져다가 썩리라 할
디분부대로 할때다 썩곳 할지라 괴독도 | 곧으디
이거시 무슴뜻시 냇가 효시 곧으디 이대령은 사름
의 마음을 비유함이니 하는님의 은혜를 밧지아니
할야 썩곳지 못함이 오이몬지느 사름의 죄를 비유
함이니 심중에 잇는 모든 악 할거시 사름을 더럽게
함이 오몬지 쓰느 거스 하는님의 룰법을 비유함이

오후에 물을 가져다가 뿌리는 거스복음의 도리를
비유함이 라하고 또 너를 온디 처음에 쓸기를 시
작할 때에 온지가 스면으로 내려나느거든 셋째
홀수업손을 네가 보았스나 이거스하느님을 법으
로 논악호거스쇼멸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히지도
못하고 도로혀 악심이 발동하야 죄가 더만흐매를
법은 사롭의 악호거스금하며 죄를 불히나라 벌선
이오 힘을 주어 죄악을 항복하게 못하느거시오 또
후에 쳐너가 물을 뿌리매 즉시 셋째 홀수어지느거든
네가 보았스나 이거스복음에 죄사하느도리와 은
혜가 더단히 광대하고 괴이하야 사롭의 믿음을 감



호시가갑호육심과복을기다리는
 열모의독도를극력치다

화식히매 죄가 곳 쇼멸흐는니 복음을 밋어 믿음
정결하여지면 영광잇는 쥬셔셔 그 가온디 거흐심
을 비유흐심이 니라 흐고 또 손을 쓸고 흐적은 방으
로드러가 매 두어 어린으희가 각각 제 자리에 안졌
스니 흐나 흐 급육이 오흐나 흐인디라 급육은 근심
흐노 모양이 잇는 것갓고 인디는 단정흐 모양이 잇
는지라 기독도 1호시드려 무려 줄으디저으희는
웨근심흐는 모양으로 안젧는나디 답흐디저희분
수매로엇을 산업이 잇는디 그 쥬인이 리년에 주마
흐되저으희는 시방다가 지고 십허근심흐고저으
희는 참고기드려 안정흐이라흐디라 그새에 흐사

롬이 보화호전 디를가지고 급육의게와셔그압희
삿아노흐매밧아가지고 디우깃거흐며인 디를업
수히녀이여웃더니 잠간 후에 그 보화를 다 헛도히
써버리고 하여진 옷밧거눔은 거시업느니라 괴독
도 1 호시드러 무려 졸으 디이 일을 명뵈히 마르쳐
주소셔 호시 졸으 디흐나 흔세 상사롬의게 비유흐
이 오흐나 흔련국뵈성의게 비유흐이니 급육이 명
년을기드리지 못흐고 지금가지라흐이 세 상사롬
의 욕심과 못흐니 목전에 복을엇으라흐면 스 후에
큰복을기드리지 못흐느니라 속담에 날 낫스 디 손
에 잇는 새흐마리가 나무에 안즌 새뵈마리보다 낫

다흐엿스니 세상에 붓흔 사름들이 이말만 요긴히
덕이 느거시 급육이 산업을 한전에 취하야가지고
잠시 동안 업시 하고 해여진 옷만 놔는 것코흐니라
사름이 만일 세상복만 구흐면 후세에 또흐이러흐
나라 괴독도 1 줄으디 배가인디 의지혜를 탄복하
리로 소이다 지혜가 여러 충이 잇스니 하나흔이 후
에 조흔 산업을 기드림이 오들저는 급육은 산업을
써셔 브리고 해어진 옷만 놔앗슬 쟈인디 느영광을
누림이 로소이다 호시 줄으디 이것썸아 나라 원리
스 후영광은 영영흐거시오 세상복은 홀연히 업서
지는 거신고로 급육은 먼저 조흔 산업을 엇고인디

를 웃고 인디는 후에 업셔 지지 아니호는 산업을 엇
고도로 허급옥을 우슬 지니 면져 엇는 산업은 오래
가지 못호는 거시오 후에 엇는 산업이라야 오래 누
리는 니성경에 부자를 의론호야 쥘으샤 디너는 성
전조흔복을 누리고 랍살로는 끈고를 격다가지금
은평안호고 너는 괴로오니라 호섯는 니라 호디 괴
독도 쥘으디는 압희복을 랍호는 거시오 후에 복
기드리는 것만 쥘지 못호 쥘세 닷겟슴는 이다 호시
쥘으디고 디말이 올토다성경에 쥘으샤 디보는 거
스볼과 잠시 오못보는 거스장구호는 거시니라 호섯
스니보는 거스세상물건이라 사람의 평옥으로더

부러화합하야 사논고로사피기쉽고못보느거손
스후에산업이라사롬의정욕으로더부러면고로
종적이성기니라하고피독도위손을쓸고흐곳에
니르니담안에불이붓느티엇던사롬이그것히서
셔불을쓰라하고물을뿌리되불이더붓느니라
독도ㅣ무러존으티이거시무슴의스니잇가호시
존으티이불은막음가온티성신이감동함을비유
함이오불을쓰라고물뿌리느거손마키를비유함
이니마키가아무리쓰라흐지라도불이더붓느고
로네게외혀막르치노라하고쓰다리고담밭그로
지나갈시엇던사롬이손에기름병을들고은근히

지엿는 디 돕고 아롭다와보기 조흔지라 괴독도
티우깃거위던 상을 쳐다보니 엿던 금옷납은 사
이그우에셔 비회하거 놀 괴독도 一 으러가기를 청
흐니 효시가 다리고던문을 향하야드러갈서 다른
사롭들은 드러가고져하나드러가지 못하 고문밖
괴섯는 디문저편에 엿던 사롭이 탁 저것히안져서
그우에척과필연을 노코문에드러가려하논 사
에일홈을 적고 또 엿던 사롭은 갑옷슬 남고 병 괴
들고드러가논 사롭을 해코져하거 놀 괴독도 一 놀
나물너서더니 혼건장하 사롭이 일홈적논 사
희나아가 일홈을 적어 주소셔하거 놀 적어 주매

리에 튜구를 쓰고 칼을 빼여 가지고 문으로 드러가
서 병기든 자를 치니 병기든 자들도 힘을 다 하야 마
자 싸화좌충우돌하매 량편이다 상하더니 그 후에
그 길을 열고 곳 지나 드러가매 턱안에 사름이 즐거
워하논 소리로 불너 큰으디 드러오라 영원하영광
을 잇으러라 하니 그 사름이 드러와서 금옷슬 넘히
거늘 괴독도 웃고 큰으디 이 뜻슬 내가 알겠노라
하고 효시드려 날너 큰으디 지금은 여괴셔셔 나더
가 갓습니이다 더 답하더 다른 일노더. 무르치리니
잇다가 갈지어다 하고 다시 손을 쓸고 빈우침침하
뵈므로 드러가니 호사름이 털롱안에 안져서 근심

하느모양으로싸흘구버보며손을묵고마음이상
 하느듯탄식하느니라괴독도ㅣ끓으디이거시부
 솟시닛가효시끓으디이거슬알고져할진디그
 사룸의게무려보라하거놀괴독도ㅣ그사룸드려
 무려끓으디그디는엇더하사룸이냐디답하디내
 가시방은전만못하노라괴독도ㅣ끓으디전에는
 무엇하엿느냐디답하디전에는주의테즈되여덕
 형이얍전하엿섯스니내가내말이아니라놈도나
 들칭찬하디나그세에련로로곳향하때이후에련
 성에니를거슬미우흙모하엿디나라괴독도ㅣ끓
 으디지금은엇더하냐디답하디내가지금은브라

던 길 이 쓴 허진 사 례 이 라 열 롱 에 갓 쳇 스 나 버 셔 나
지 못 하 야 나 아 가 지 못 하 노 라 기 독 도 一 쥘 으 디 워
여 기 갓 쳇 스 나 디 답 하 디 배 가 처 음 에 는 충 심 을 다
하 야 조 심 하 다 가 후 에 점 점 게 으 르 고 소 욱 을 쫓 아
거 르 하 도 리 를 거 역 하 야 하 는 님 은 헤 를 쥘 버 리 고
죄 를 성 신 썩 었 으 니 성 신 이 나 를 썩 나 고 마 귀 의 게
혹 하 매 마 귀 가 나 를 갓 가 히 하 여 하 는 님 을 진 로 케
하 매 하 는 님 이 버 리 시 되 배 무 음 이 곳 어 회 기 처 못
하 노 라 기 독 도 一 효 시 드 려 날 으 디 이 런 사 례 은 버
랄 거 시 업 스 릿 가 디 답 하 디 쥘 드 려 무 르 라 하 거 늘
기 독 도 一 무 러 쥘 으 디 그 디 가 버 랄 거 시 업 스 나 이

렬릉속에영영이잇겠느냐티답흐디브랄거시업
노라괴독도ㅣ골으타웨그처럼말흐느냐하는님
아들이티우즈비혹시나라그사름이티답흐디내
가그아드남씨죄를엇어다시십자가에못박히게
흐야그공로를정히덕이며슈모흐고그외를레스
로히알아은혜에성신을더럽게흐고로하는님에
은혜에말숨이변흐야부지름이된거손하는님과
원슈됨이라그런고로노흐샤나를멸망케흐신다
흐거늘괴독도ㅣ골으티처음에무어슬구흐랴다
가야모양이되엇느냐그사름이티답흐디내가스
욕으로세상에쾌락흐지물과보비만구흐디너이

거사시방은도로혀베口음속에불사로느것과좀
먹느것긋치괴롭도다괴독도一곧으티네지금은
회리흐지못흐것는나티답흐티원리회리라흐는
거손은혜맛노문이라하느님이나를회리흐라허
락지아니흐시고이문을닷으시고털롱에가두시
매이세상사름중에누가나를버셔나게홀이업스
나가련흐고가련흐도다영영흐화를엇지춤으리
오흐거늘흐시一괴독도드러닐으티이사름의환
을네맛당히괴역흐고홍상조심흐라괴독도一곧
으티이거사춤두려운지라하느님씨셔나를도아
조심흐고일세계흐야홍상괴도흐야져사름긋치

죄를 범하고 피로움을 밧지 안케 하시기를 바라노
이다 하고 호시드려 널 너 졸으디 지금은 내가 떠나
도 판계치 아니 하릿가 호시 졸으디 호가 지더 마르
쳐 주라 니가 드려 갈지어 다 하고 손을 쇼을 고 호 방
에 드리 가 매 었던 사름이 침상에 서 갓 니려 나의 복
을 짐으며 원 몸을 썰 거 놀 괴 독도 | 졸으디 이 사름
이 어 이 호야 셔 노 잇가 호시 가 그 사름을 분 부 호야
괴 독도의 제 말 하라 호 디 그 사름이 졸으디 밤에 썸
을 꾸니 하 놀 빛 치 변 호야 심히 검고 또 무섭게 려 동
번 리 호 거 놀 게 모 음이 대 단 이 두 려 위 머 리 를 들 어
보 매 검 은 구 롬 이 나 리 나 는 곳 에 서 나 발 소 리 나 며

화림이 창련하더니 소리잇셔 불너 끌으되 죽은 사
름은 다니러나 심관을 밧으라 하매 죽각에 바회가
다갈나 지며 분묘가 다 열녀 죽은 사름들이 다 나아
와 후깃거워 처다보논이 도잇스며 후무셔 위산아
리로 도망하야 숨으랴 하논이 도잇더니 그세에 구
름우에 안자신 쥬셔서 칙호권을 펴노코 원련하사
름의게 분부하샤 모도 압흐로 오라 흘새에 불쑥치
그압희셔 나러나 매 모든 사름들은 불저편에서셔
심관을 밧을시련스들 위게 명하여 끌으샤 디겨는
거두어 불에 너하하시매 더욱을느려다보니 밧
업스쿨형이라 나섯는 것히 사히 흘연히 갈나 지며

연기도 잇고 불도 잇고 또 이 상 호 소리도 나더니 구
름우 희안 저신이 가또련스의 계명 하야 곧으샤 더
내 곡식을 거두어 창고로 드리라 하시매 여러 사람
들을 련스가 구름으로 영접 하야 올터가고 나만 쟈
에 넘겨 두매 나도 숨으랴 하더니 구름우에 안저신
쥬가 저 조나를 내려다 보시기에 숨지 못하코 내 죄
가 다 생각나며 량심이 나타나셔 거듭 거듭 저
다가 씨엿노라 과득도 一 곧으더그더가 그런 거
보고 뉘무셔 위하느냐 디 답하더내 생각에 심판 날
이니 르리스매 내가 예비하지 못하엿스니 미우 겁
나느거스련스들이 여러 사람들을 인도하야 구름

우로올녀가고나만싸에놈겨듬이오또디옥불구
덩이간나섯는곳에셔머지아니흐매배가지치흐
야생각흐터심관흐시는쥬머셔홍상느려다보시
고얼끝에분노흐심을뵈시는고로미우두셔위흐
노라흐거늘호시가괴독도드러닐녀즈으당그터
가튼거슬괴역흐느냐터답흐터괴역흐겟습느이
다이런거슬보오너변라는것도잇고무섭기도흐
읍느이다호시즈으디다만이런일을모음에괴록
흐고힘씨셀니압길노나아가라흐터괴독도그
제야정신을차려길을가라흐매호시그도흐며
보배녀즈으디어진괴독도야보혜스
병신이라하
는뜻시라하

가홍상녀와함씨하야련성가는길을인도하기를
비라노라하더라과독도ㅣ셔나가며글을읽하니
하엿스디

별과화가지괴이호연

이내몸을인도하하여
좁은길노가게하하여

여러참도분명하엿말

명시해배성각하니
명심불망하리로혜

주의성선복으심이
고명홍도고명하디

하더라과독도향하야가는길좌우편에담이들녘
스니그담에일흙은어모ㅣ라그리로지나갈시등
에짐이무거워미우어려워하더니호고기말비니
르니우희는십조가를세웠고아리는무덤이잇는
지라과독도ㅣ거괴니르매짐이절노버셔져그무

귀도도심조가애다
로죄짐을벗스니런사
가흰옷을닐하다



덤속으로 굴녀드러가니 다시 보지 못하갓느니라
귀독도 1 깃분중가브얍고시원함을세닷지 못하
야골으티우리쥬셔셔괴로음밖으심으로나물패
락하게하시고우리쥬셔셔죽으심으로너게성명
을주시도다하고일변보며일변괴이히턱여보고
또다시보고심회가감동하야눈물이제절노흐르
느니라그사에벧나고거룩하신사름세시압흐로
와서평안하기를축슈하니첫재분은말씀하시던
네죄를샤하엿다하고둘재분은해여진옷솔벗
기고흰옷솔벗고어넘히고셋재분은텅슈리에귀
호를안치고또뺑거하느문찬을주며그우에안치

고분부흐시디길갈썬에홍상보다가련문에너르
러이문권을드리라흐시고세분이다가시느니라
괴독도 | 즐겹기가한량업셔클을저여음흐니흐
엇사다

아재가우물굽어보세니

우리죄를안담하더
형성권을일엇도다

뜻박혀서죽으심은
나를더신하심일세

그일홍을찬송하더
주의병화만년일세

흐더라괴독도 | 압흐로나아가셔음쪽흐디에니
르니길것히세사람이잇셔누어자느디두발에착
고를짐가는지라흐사람의일홍은우뭉이오흐사
름의일홍은히라오또흐차름의일홍은저시 | 라
괴독도 | 압흐로가셔썬여주랴흐야불너르으디

너희가여기셔자느거시위티흐기가맛치듯데우
희셔자느것또도다그밋히한업시갑흔바다히잇
스니어셔씨여니러나셔나와또치가자만일내말
을드르면내가너를도아착고를벗겨주겟노라또
아귀가스자또치소리흐며곳곳사든니니혹맛나
면너희가그밥이될사흐노라흐니우몽은말흐티
내가위험함을보지못흐녇노라흐고히라느말흐
티좀더자겟노라흐고저시느말흐티너느네일이
나간섭흐지네일은상관말나네게무삼상관이잇
느냐흐고셋시다여상히자느지라귀독도一길을
가며그사름들이위험흐곳에잇슴을생각흐야다

고려시대
의 농민들의 모습



시가 서서 여권하고 착고를 벗겨 주라 하되 너브라
보매 웬사름들이 길원편에서 담을 췌어 너머와서
급히 쓰르니 혼사름의 일흠은 시의 오소 혼사름의
일흠은 위선이라 괴독두 무리 존으되 두분은 어디
로 오며 어디로 가시오 두사름이 존으되 우리는 허
영이라 하느사에서 성장하야 조흔 명성을 구하라
다 가시 방은 순산으로 가라 하노라 괴독도 존으
되 그러면 웨길 머리에 좁은 문으로 오지 아니 하엿
느냐 성경에 존으샤되 이문으로 드러 오지 안코다
문 곳으로 췌어 드러 오느자 논 강도 1라 하엿스니
이 말슴을 아지 못하느냐 두사름이 존으되 처음에

노그문으로드러오랴한다가우리동향사람들이
미우먼거슬혐의흐는고로갓가온디로너머왔노
라기독도ㅣ곧으디우리가다련성으로가랴흐는
사람이라이러케흐는거시엇지하느님의분부를
범함이아니냐그리흐고죄업다흐겟느냐두사람
이곧으디이거슨그디의패렴홀거시아니라우리
가이러케함은수천년이러로여러사람의빙거가
잇슴이라기독도ㅣ곧으디이러케홀거시를법에
맛당흐냐두사람이곧으디천여년을이풍속이잇
섯스니공평호관장을맛날지라도필연을타흐겟
고또바른길을엇어드러왔스니엇지지난일을의

론하리오그디는 좁은 문으로 드러와셔도 이길에
잇고 우리도 담을 너머와스되 이길에 잇스니 서로
비교하야 보면 무어시나 하냐 괴독도 이르지나
는 주의 법대로 행하리라 오그디는 의대로 행하
라이길에 주시셔그디를 도적으로 멸하엿스니 나
종에 잘되지 못하리라 그디가 주의 분부를 듣지안
코 망녕되히 드러와스니 후에 은혜를 입지 못하교
공언히 쫓겨나리라 하디 두사람이 아 말을 듯고 디
답할말이 업셔말하디 너는 비알이나 보라 하교서
로의른 업시 각각 길을 갈서 두사람이 우연히 괴독
도 드러볼으디 그 법과 풍속을 우리도 그디와 못치

큰 절히 직힌 고로 그 티와 다름이 업스되 의복만 다
르니 아마 그 티의 리웃 사름이 주어 몸을 무리워 붓
그리움을 면케 흠인가 하노라 괴독도 일결으 디그
티가 좁은 문으로 드려 오지 아니 하엿스니 범과 풍
속으로 구원을 엿지 못하리라 내 몸에 옷스 쥬셔셔
주신 거시니 그 티 말조치 내 몸을 무리우라 하신 거
시라 내 가전에 옷시 람루하매 쥬셔셔 나를 사랑하
샤 주신 표적이니 길 갈셔에 흥상 평안하게 하신 고
로 내 생각에 연문에 이르면 이왕 주신 옷시 내 몸에
잇스매 주의 셔텡녕아 실 거시오 아시매 조흔 곳스
로 인도 하실 터이 오소 내 텡슈리에 인 천 거시오 잇스

되너희는보지못하리라이거손내몸에짐이버셔
지날날에쥬와갓가오신이가인친거시오그새에
또빙거잇는문권을주시며널으샤디길갈새에
으면모음이평안하리니련문에너르거든이문권
을드려드러오느중거를삼으라하신빙거가잇거
니와너희는좁은문으로드러오지아니하였스니
이런거시업스리라두사람이이말을듯고되답호
말이업셔서로보고웃기만하거늘차독도아압호
로가셔두사람과다치말하지안코흔저생각하고
후란식하며후상쾌히도덕이며또빙거잇는문권
도홍상펴보매모음이평안하더라그사람들도이

압흐로나아가간산에너르니라그산아래물은
심이잇고또두갈배길이잇스니흐길은좌편에잇
고또흐길은우편에잇고정로는산우희로통하야
그리로올나가기가미우힘드느고로일흐를간산
산이라하느니라괴독도심물을써먹고정신이
상쾌하야산우희로올나가며글을흠흐니흐엇스
디

어산려운야졸모로잇네

성이명리갈이여이리르가다세

별원양홍길은노련가훈노야

무현진신묵고누흐리후라세

흐더라시의와위선이산나래너르러보니산세가
좁고위험흐디것히두갈배길이잇거늘생각흐디

그 길 이 산 허 리 로 통 하 였 사 니 정 로 로 련 하 였 사 리
라 하 고 뜻 들 결 단 코 두 갈 내 길 노 갈 녀 가 더 라 하 나
흔 위 험 이 라 하 는 길 이 오 쓰 하 나 흔 패 망 이 라 하 는
이 라 하 사 례 은 위 험 으 로 가 다 가 겁 흔 슈 풀 에 드 러
가 흔 미 하 고 호 사 례 은 패 망 으 로 가 다 가 널 흔 들 에
니 르 매 산 이 만 코 캄 캄 하 지 라 실 족 하 야 업 더 져 니
러 나 지 못 하 니 라 괴 독 도 一 산 우 로 갈 서 처 음 에 는
급 히 가 다 가 후 에 는 천 천 히 가 더 니 점 점 위 험 하 더
니 르 매 갈 수 업 서 헤 미 며 무 름 흘 솔 고 괴 여 올 나 가
니 산 달 네 덩 지 하 나 히 잇 는 지 라 이 덩 지 는 쥬 예 서
길 가 는 사 례 을 위 하 야 노 곤 흔 예 에 쉬 라 고 지 으 신

거지라 괴독도 | 끈흙을 너이지 못하야 안져쉬일
시명거흐느문천을 품속에셔내어보매 미우막음
이평안하고 또십자가 겹히셔 엮은 옷솔다시금저
네히보애십분상쾌흙을이괴지 못하야즐거워하
다가잠안조름이오매잠이드러밤들도록괴셔
잘사손에든문천이셔러젖느니라그새에흐사름
이압흐로나아와셔여졸으디게으른사름아너러
나라네웨개암이롤보지 못하느냐그부저런흙을
비화홍명호사름이되라하거늘괴독도 | 놀나셔
여셜나너러나압흐로나아가산씩닥이에너르니
두사름이급히마조다라오니흐사름에일흙은심

과독도가 회의와 심경
의 말을 듣지 안다



경이오또호사롬의일흠은회의라괴독도ㅣ무려
큰으티이거시무슴일이냐어이호야셔도로셀너
오느냐심경이큰으티우리가순산으로가랴호야
어려온곳을지나왔스나더멀니가면더위험함을
맛나겟느고로몸을도리켜도라가랴호노라호고
회의는큰으티여괴셔멀니아나가셔길가에스즈
들이누엇스니자느지셰엿느지아지못호겟스나
조심은아니홀수업셔갓가지못호엿노라괴
독도ㅣ큰으티너희가이러케말호야나를무섭게
호나나느고리로가야평안호겟고만일장망성으
로도라가면네가괴셔망홀거시오런성에나르

후에 영영히 평안할지니 힘을 다 하야 압흐로 나아가
가겠노라 도라가는 거스령녕죽는 거시니 압흐로
가다가 무셔움을 맛날지라도 일녕죽지 아니 할터
이 오혹죽을지라도 후에 노영성을 엿을지니 죽의
를 영흐엿스매 가겠노라 흐거늘 회의와 심경이 작
별흐고 산으로 내려가느니라 괴독도 1 압흐로 향
하야 갈시다시 그 두사람의 말흐던 거슬 생각흐고
문권을 보내여 늙어먹음을 평안히 위로코져 하여
손으로 품속을 어루만져 찾지 되업느니라 괴독도
1 생각흐티 먹음을 위로하느거시이 문권일썬터
러이 후에 려성에 가서도 이거슬 가져야 빙거를 하

갓논고로엇지흐면조흔년지아지못흐야거정흐
다가산말우덩저에셔자던거슬싱각흐고그른줄
을씨다라무릅흔볼고업드려하느님쉬용셔흐심
을구흐고그문천을찾자랴고도로갈시심중에근
심흐느거슬말노다흐지못흔지라혹란식흐며혹
을며즈척흐야골으디쥬셔셔텅저를지으심은원
리사름을위이라흐심이오잠자라흐심이나니어
늘네가жат스니진실노어리척도다흐고길에셔도
이리저리살펴보고차져여가다가자던텅저에니
르러또제죄를싱각흐고근심흐며잠잔거슬란식
흐야골으디가통흐다쥬셔셔이텅저지으신거스

나를 쉬게 하샤 정신을 차리게 하심이어늘 내가 간
난산디 경에셔 게으르게 낮잠을 잤도다 지금 내가
호번갓다가 호번도로 오매 길만 헛된 거름이라 벗
날이 식렬벽성이 하는 넘씨 죄물었으매 하는님이
벌주샤 흥희길 노가게 하신 것갓치 내가 이제 리왕
호며 근심하니 탄일 자지 아니 호엿던 들시 방한창
길 가며 즐거워 할지라 여괴셔 천에 호번간 것파이
제 왔다가 또 다시 갈거시 세 번 리왕이라 세 번 리왕
에 날이 다어 들겠스니 그세에 잠잔 탓시로 다 호고
즈척 호며 그 텅즈에 나른 줄을 사 닷지 못 호고 드려
가 안져 통곡 호다가 우연히 머리를 숙여 자리아래

과독도가 일출은 표지름

도로차졌다



를 굵어 보매 그 문권이 잇거늘 열며 열니 집어 품 속
에 감초더라 괴독도 그 문권을 잇고 희우깃거워
생각하디시방은 영성을 엇고련성에 나아가셔 그
문권으로 빙거를 삼으리라 하야 단단히 품 속에 감
초고하느님 쉬셔이 처럼 지로 하심을 감샤히 념이
고 일변 깃거하며 일변 숨허하며 다시 길을 쉼나 쉼
니 산으로 올라갈 서 채올나가지 못하야 희가셔려
지논지라 전에 잠자던 거슬 다시 휴회하야 곧으디
잔거시크게 잘 못하엿도 다히진 후에 가매 상이 회
지아니 하고 들 증성에 소리만 들너니 미우무셔온
지라 또 전에 회의와 심경이 스즈누은 거슬 보았다

이 독도가 소경 잇는 뒤를
지나다



흐말을 생각하ᄃ고 곧으되 저 짐성이 밤에 나와 사
름을 해하ᄃ라하ᄃ면 변통업시 죽으리도 다하ᄃ며 가다
가 눈을 드러 자세히 보매 좁흔던 각이 잇스니 그 일
흙은 미궁이라 괴독도 | 셤니 압흐로 나아가거 괴
셔류속하ᄃ라하ᄃ더니 얼마가지 못하ᄃ야 좁은 길노드
러 가서 문산방에 서머지 안케서셔 자세히 압길을
보매 사ᄃ자들이 누엇스니 이 사ᄃ는 회의와 심경의
말하ᄃ던 두 사ᄃ | 라 쇠사슬 노리엇스나 괴독도는
땀줄을 아지 못하ᄃ고 마음어 무셔 위심하ᄃ던 그 압
흐로 가면 죽으리라 하ᄃ야 회의와 심경코치도로 가
라하ᄃ더니 그 새에 미궁문 작힌 경성이라하ᄃ는 사름

이과독도의도로가랴흥을보고크게소리하야불
너흔으티그티담략이엇지그처럼적으냐고스즈
들을외사슬노미엇스너무셔위말나그즘성을여
과둔거스쥬밋음을시험흥이라그티가길가온티
로올지라도해를밧지아너하리라하티과독도
스즈압흐로나아가며스즈의소리를드르너무셔
위셜너나물너지안코곳지나가셔손벽을치며크
게즐거워련문에너르러문직헌사름드러무르티
이거시뉘되이니잇가오놀밤에쉬여가기를청하
느이다디답하티이되은이산쥬인여셔길가는사
름을위하야보호하며구제하라고지으신집이로

라 하려 쓰 무려 끝으 디어 디로 오며 어 디로 가랴 하
느냐 괴 독도 一 끝으 디 나는 장망성에 서 순산으로
가는 사람 일너 너 이제 허가져 무릇 스매 오 놀 밤쉬
여가기를 청하느 이 다 문직 흰 사람이 끝으 디 엇지
하야 허가 다진 후에 오느냐 괴 독도 一 끝으 디 내 일
이분하도 다 산말네 텅저에 서 잠자 지아 기 하엿더
면 여괴 일즉 왓슬 거시오 잘해에 문천 만일 치아 너
하엿셔도 이고 성은 아나 하엿겟노라 산말 우를너
머오다가 문천 일흔 줄을 알고 갓던 곳으로도 가
셔 차려가지고 오기세 오래지체가 되여 이제야 왓
느 이 다 문직 흰 사람이 끝으 디 그러면 이 곳성도 하

나 흘청하야 그덕말을 드려 본 후에 범머로 우리 주
인과 서로 보게 하리라 하고 종을 치니 안에 서 종 소
리를 듯고 흐단 정흥성도가 나야 오니 일흠은 근신
이라 왜 볼 벗는 나 못 거 놀 문직이 디 답하 디 이사람
은 장광성에서 순산으로 가다가 피곤도 하고 날도
져 문고로 오 놀 밤에 예셔 쉬여 가 깃노라 하 기에 그
디를 청하엿스니 말을 드려 보고 함당하 면 집안 법
머로 호소셔 하니 근신이 괴독도 드려 무르 디어 디
셔 앓스 며 어 디로 가 는 나 괴독도 이 전과 못 치 디
답하 디 근신이 또 일흠을 못 거 놀 디 답하 디 배 일 흠
은 괴독도 로 소이다 듯스 온 즉 이 산 주인 서셔 이 디

을 지으시고 형인을 위하야 보호하며 구제한다 하
오니 예셔하로 밤쉬여가라하옵느이다 하디 근신
이 감동함을 세닷지 못하야 숭허하며 깃거하디 너
조곰 후에 괴독도 두려널으디 집안 사름들을 청하
리라 하고 셤니 드러가셔 현지와 경전과 인의 세사
를 청하야 오니 세사름이 괴독도와 잠만담론하
다가 다리고 드러가셔 원집안 사름과 서로 볼셔여
러사름이 문에셔 영접하며 콜으디 쥬의 은혜를 엿
은 사름은 드러오소 쥬셔셔이 잡지스신거슨그디
뜻치가논 사름을 특별히디 접하라함이 라하디 괴
독도 1음하고 쥬르드러가셔 안재채를디 접하

고 졸으되 겨녁이 아직 못 되엿스니 못치담론이나
흐스이다흐니 이듯스 괴독도의 일을 저세히 알고
저흠이라 근신이 세사름드려치담론하라흐되
경건이 졸으되 조흔 괴독도야 우리가 서로 친이흐
뜻사로 그되를 머물게흐노니 길에서 본 모든 일을
저세히 말흐야 우리의 게도 혹유의 흠이 잇나 보스
이다 괴독도 | 졸으되 이거시 나의 원흐노바니 여
러분께셔 이런 말슴흐심을 내가 미우조화흐노이
다 경건이 졸으되 그되가 처음에 려로 감이 무슴
의스 | 냐 괴독도 | 졸으되 내가 본 향에 잇슬씨에
무셔온 소리가 흥상내 귀에 들녀 졸으되 네가 만일

이복도카미공의
다못다.



본향에잇스면 멸망함을 면치 못하리라 하기에 썩
쳐나아왔느이다 경건이 존으되 그 덕이 향을 썩
나서 엿터 케이길 노왔느나 괴독도 존으되 이거
시하느님의 뜻이니 그 때에 내가 멸망함을 무셔 위
어 디로 갈 줄을 몰랐더니 우연히 전도라 하느니 사람
이와셔 내가 썩며 우는 거슬 보고 좁은 문으로 가라
라 큰 처지 아니 하엿스면 여괴 차려 오지 못하엿겐
느이다 경건이 존으되 썩나오다가 효시의 집을 찾
지아니 하엿소 괴독도 존으되 그 일을 하나도 보
지아니 하엿느이다 또 세가지요 긴 호일이 잇스니
사람의 믿음에 성신이 감화하면 마귀가 시험하되

과독셔셔보호호야주시는것과또엇던사람이하
님셔죄를엇으며쥬셔셔다시은혜를베푸샤죄
를샤호야주지아니호심과또엇던사람이솨을우
매심판날이니른거솔보앗다호말을드렸스니이
여러가지가다이상호더이다경건이존으디그사
름이솨운거솔말호더니잇가과독도존으디그
솨이테일무셔온솨이라배가그말드를셔에일변
격정스럽고일변깃부더이다경건이존으디호시
의집에셔또다른거솔보앗스나과독도존으디
또나를다리고가셔놓흔궁연을뵈기에저셔히삼
허보니그안에잇는사람들이다금옷을넘엇스디

문어구에 병괴든 사름들이 서셔 드러가라흐는 사
름을 막으며 흘연히 흘다대흐 사름이 갈노 길을 헛
치거늘 가온디로 드러가매 궁중사름들이 영접하
야드리며 곧으디 영원호성명을 잇으리라흐매 내
가 그 일을 보고 미우기거위흐엿스니 만일 압흐로
더갈길이 업더면 효시의 집에서 오래 류흐라흐번
흐엿는 이다 경전이 곧으디 길에서 쓰무어슬보았
느냐 괴독도 | 곧으디 멀니 아니와셔 나무우희 걸
녀 피 흘닌 사름을 보매 내 짐이 버셔지녀 이다 전에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며 통곡흐다 가 짐 버
셔질새에 미우괴이히 녀여서셔 조세히 보더니 흘

연이 빛는 사롬 셋시와셔 각각분부흐시니 혼분은
글으샤 디배 죄를샤흐 엇다흐시고 둘재분은 내람
루흐 옷슬 벗기 고 흰 옷슬 주어 넓히고 셋재분은 내
너마에 인치고 또 문셔를 주더이 다흐고 품속에서
문셔를 배여 노흐니 경건이 글으디이 밧과 또 본거
사업는 나괴 독도 글으디 지금말흐거시오긴흐
거시오 또 다른 거슬 보앗스니 올썩에 우뫼과 히타
와즈시 세사롬이 길젓히셔 착고 를차고 자매씨여
도비러나지아나흐는 것도 보앗고 또 시의와 위션
이라흐는 사롬이 담을너머와셔 공연히 말흐디 순
산으로가노라흐기에 주의말슴메로 무려쳐닐으

티버말을신령히지아니하다가필연화를맛났스
터이오또산으로올나갈새에도미우근고하엿고
스저인논숫에셔도미우어려워하엿스나만일문
직힌사름이마르치지아니하던돌무셔위도라갈
번하엿스나하느님의별으신은락으로나를거두
워주시는거슬감샤히택이오며또여러분셔셔관
디하오나불안하여이다하더라그새에현지도하
멧가지일을생각하고저세히무려명백히디답하
나보리라하야무려곧으디그디가고향을셔난후
에혹생각하느냐과독도ㅣ곧으디생각하나미우
붓그러오나단뎡코도로가기를원치아니하고디

과도도가
드러가다

비움에



우조흔곳을구하느니내의원하느바느련국이로
소이다현지곧으디그디가이전에속습하악하거
시엇지지금다업셔젧소리오과독도ㅣ곧으디간
혹스욕에생각이잇스나내뜻시아니라이전에본
향에셔즐거워하던일을지금은다후회하느니이
런생각이조곰도업기를원하나션호일을하라하
재에노악하거시향압하로셔르든니느이다현
지곧으디그악하거시엇지하면업셔질뜻하냐과
독도ㅣ곧으디업셔질셔가잇젧지마느업시하거
가쉽지못하나이제브러느글은일을일명손허브
리자하느이다현지곧으디그리하면악하거시후

업셔 질 뜻 하나 괴독도 一 쥘으 디 배가 십 자 가 것
셔 본 일 도 성 각 하며 흰 옷 도 보며 빙 거 잇는 문 권 도
남 으며 또련 성에 북 륜 을 브 라 보 면 악 흐 거 시 업셔
질 뜻 하여 이 다 현 지 쥘 으 디 그 디 가 어 이 하 야 순 신
으 로 가 라 하 는 나 괴 독 도 一 쥘 으 디 십 자 가 에 달 터
죽 으 신 쥘 여 셔 다 시 살 앓 스 배 배 가 그 리 로 가 면 뵈
일 터 이 오 나 쥘 요 란 케 하 던 악 흠 도 업셔 질 거 시 오
또 영 광 을 엮 어 하 는 님 의 거 료 흐 빅 성 과 또 치 살 지
라 배 진 실 노 그 디 의 게 고 하 는 니 쥘 여 셔 배 짐 을 벗
겨 주 신 고 로 배 가 미 우 몽 경 하며 스 랑 하 는 모 음 이
잇 스 즉 흐 거 시 셤 니 업셔 지 고 영 성 흐 는 곳 에 니

물줄을아느니그곳에잇는사름들은항상쥬를찬
미흐야크게소리흐야끓으디거룩하다거룩하다
거룩하다흐느고로그사름들파곳치작반하랴
히니아다그혜에인이가또과독도드러무려끓으
디가편이잇느냐과독도끓으디안히와으히넷
시잇는이다인의끓으디왜다리고오지아니하엿
느냐과독도끓식하며올며끓으디나느다리고
올모음이큰절하나내가련로가는거슬저희는
실여하더이다인의끓으디그사름들이위티흐곳
에잇스니그디가갸르쳐주는거시올을뜻하외다
과독도끓으디본성이장찾망홀거슬하는넘이

서에게 마르치시매 내가 쓰저희들의게 마르쳐도
밋지 아니하고 도로려나를 밋쳐다 할터이다 인의
존으디 그터가 그러케는 하였거니와 하는 님씨
도 할야 저희들을 감화식혀주소셔 하였는 나괴
도 존으디 그리 하였는이다 사롬마다 처저 사랑
하는 줄은 다 아는 거시라 저희를 위 할야 믿음에
우르절히 괴도 하였는이다 인의 존으디 내 생각
니 멸망 할 징조를 그터가 텅텅 알앗겠스즉 믿음에
무셔 위 근심 하는 말을 저희들 할터도 속속 이 날
넋나 괴독도 존으디 내가 여러 번 말 하였고 내가
후에 형벌 받을 거슬 두려워 눈물이 흐르며 몸이 열

니며근심흐는거슬저희가또보았스니저연알겜
스나쓰근오지아니흐엿는이다인의존으티웨아
니오갓다흐더냐괴독도ㅣ존으티내쳐는세상에
조흔것만성각흐고내아들은나히어려작란흐기
만즐거흐는고로나흔저왓는이다인의존으티그
티가말노만흠씨가자흐엿스니네형스가단정치
못흠을보고권흐는말을신령치아니흐가흐노라
괴독도ㅣ존으티내가그릇흐일이만흐니네형스
가단정흐다흐수는업스나내가리스에조심흐는
거스형스가부정흐면저희들이쓰르올몸이업
슬아흐야두려위흐나저희가도로혀나드러미혹

흐엿다흐고배행실을깃거아니흐니이거스다름
아니라배가너무조심흐야하는님을깃거위흐며
리웃사름의게도각박히구지못함인가흐는이다
인의결은티넷적에도이런사름이잇스니히은은
제동성이착흐일흐는거슬미위흐고원망흐엿스
니그티가착흐일흐는거슬그티쳐저가만일실혀
흐야션흐과원슈되면구원을엇지못흐는니죄가
그티의게잇지아니흐겟다흐터라여러사름이이
처럼담론흐다가져녀이되매진찬을곳초차려드
리는지라원집안사름이서로담론홀서말흐는거
사다산쥬인의행흐신일과미중지으신일이러라

과독도 | 졸으디 내가 여러 사람의 말을 드르니 그
말에 널 녀스디 쥬셔셔 평성에 용망이 과인호샤세
상사름의 원슈와 ㄹ치싸 화이 과시느거스마키가
홍상사름해호느권세잇스매 쥬셔셔 사름을 사랑
호시느모음으로 억제호신다호니 나도 그런줄알
거나 와또 괴롤호니 신은혜가 미우크매 심분경의
호노라호니 그중에 호사름이 졸으디 쥬셔셔 십자
가에 못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후에 눈으로 보
고 호셔말호녜스니 그런중거를 보면 쥬셔셔 턴로
로가느사름을 깃거호시느줄알지 나련하에 쥬크
치세상사름을 사랑호시느이가 업솔지라 쥬셔셔

련당의영광을버리고세상에느려오샤죄인을
구원하심을보았스매사롬을근절히스랑하심을
알거시오또그말씀을드르매순산에셔흔복을
누리라하시지안코여러사롬파곳치누리라하심
을알겠다하니또하사롬이골으되련로로가는사
롬이비록거지곳치더러운곳에잇슬지라도쥬셔
셔쇼러내샤존키하사롬을만드느니라하며여러
사롬이이러케피차담론하매밤이집혔는지라
도흐후에모도하여져가고괴독도느흐큰다락우
희셔잘서창이동향으로났는지라일즉히가빛초
이니그방일흙은평안방이라불도록자고서때티

우평안호고즐거워클을지으니그클에호옛스디

드령언저오잇만말을
여편과와할즐기인도몸중이

주에강도높고높다
연국어여다괴로다

호더라여러사툼이아참에니러나담론호시괴독
도드려닐너클으리우리가괴이호물건을빌거시
니기드려셔나라호고다리고또호방에드러가셔
상고씩서척을넘어들니니넛적브터변역지아니
호는하느님의아들이저연히계셔셔시종이업는
거과또주의말슴과형호신일과또주여셔샤신종
들을형영이문히지지아니호는집을주신것과또
주의종들이이전에세운공과주의종이능히대적

을항복밧고공번되고을흔일을항하야하느님의
허락하사복을엇고사자의입것히살며볼뵈스르
고갈날을피하며약하거시변하야곳세여싸흠에
욕력이잇서적진을파하녀다하엿더라또다른최
에닐넷스디사롬이쥬를훼방하다가죄를엇으면
쥬씨셔도로혀죄를샤하시고총의하다하섯고이
외에도녀러괴이하일을괴록하엿스니그대지를
말하면넷적브러지금스지모든일과션지말하거
시후에다응하녀쥬의원슈를놀내여무섭게하며
쥬의테저를깃잡게하고평안케하이라잇흔날
또다리고군괴고에니르매안에싸흠하느괴제를

귀독도가랍
오손님다



두엇스니 성신의 보검과 주를 밋는 방패와 공의로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과 구원하는 투구와 기도
의 쓰는 거계와 복음의 신이 잇스니 그 신은 신어도
해여지지 아니함 주씨려련로 가는 사람을 위
하야 예비하신 거시니 사람의 명수가 바다에 모래
꽃 흠지라도 넉넉히 쓰게 하였다고 쓰함이 전에
주의 종들이 여러 가지 괴이한 일을 하며 쓰던 거계
를 보니 마셔의 집 형이와 아리씨가 서세라 죽이던
럴뢰와 못과 기던이 미던 군사를 출살하던 병과라
발과 등과 산가가 룩박인을 죽이던 쇠 채색과 삼손
아 일천인을 죽이던 나귀 턱뼈와 대벽이가 득사람

가리압을죽이던물미와들파쓰쥬셔녀노를발호
샤악호사름죽일보검과그외에쓰여러가지조흔
보비에물건을다내여뵈매미우깃거위보기를다
호매모든사름이다시가셔자더라괴독도ㅣ그잇
호날니러나셔나랴호더여러사름이쓰리일스지
류호라호야존인더만일일괴가조호면그더를다
라고가셔략산을보일지니그산이여괴셔런성가
는것보다갓가오매그더가가셔구경호면미우즐
거위호러라호니괴독도ㅣ허라호고류호니라아
침이되매그사름들이일죽니러나괴독도를다리
고던각에올나가셔남을향호고보라호매보니호

과락호곳이보는디조흔산과아름다운나무와포
도동산과각종과일과화초와물온시내가잇셔구
비구비흐르니나경치가보기조흔지라과독도
그셔일홈을무르니디답호디여괴는이마너리의
싸히니현로로가는사름을위호야공번되게문들
락산이라그디가만일거과가면거과셔현성문을
그르쳐빌사름들이만호리라호디과독도
1셔나
라호니그사름들이또류호라호지못호고졸으디
군피고에가자호거늘산르드러가니천고호잡옷
과날카온병과를주어몸에입히며손에쥐이라호
여졸으디길에셔원슈를맞나거든방비호라호디

라 괴독도 | 굵고 고에 서나 아와셔 여러 사름과
치대문에 니르러 문직힌 사름드러 무려 졸으디 시
방후 지나 가는 사름이 잇섯는 나 디답흐디 잇디 이
다 괴독도 | 졸으디 그 사름의 일흠이 무어시라
터냐 디답흐디 진충이라 하디 이다 괴독도 | 졸으
디 그 사름을 나 도아는 나 내리웃 사름이라 필연 내
본향으로 왔슬 지니 그 디생각에 열마나 멀니 가 승
즉흐냐 디답흐디 지금 아마 산밋히나 갓슬 뜻흐여
이다 괴독도 | 졸으디 그 디가 전일에 나를 디우후
디하엿스니 원컨디 쥬 | 흥상 그 디와 흠이흐 사복
을 더 만히 주시기를 원흐 노라 하 고셔 나 갈서 근신

과경건과인의와현지네사름이산밧쓰지쓰르가
셔전송홀시홀씨가며괴츄슈작홀느거시다구주
의일이러라괴독도ㅣ꼴으티네가이산에올나올
췌도민우어려웠스매느려가기도아마위티홀뜻
흐녀이다현지꼴으티그티말이올소이다이산으
로느려가거결다경에나르기쓰지밧그려져도붓
잡을거시업고민우어려운고로우리가고리밧쓰
지전송홀라홀야홀씨오느이다홀더라괴독도ㅣ
첼첼이느려갈시심분조심홀나홀두번밧그려졌
느지라령밧히나르러느그신과경건등이전송홀
며섹홀덩이와포도홀송이를주거늘괴독도ㅣ밧

장수전
장수전가왕마귀파



아가지고길을가니라귀독도 거결싸에니르러
얼마아나가다가사름을해흐는마귀를맛나니
온에미우무셔위성각흐티도로갈싸여괴섯슬싸
흐야쥬져흐다가다시성각흐티압희는갑웃시잇
스나등뒤에는업스니몸을도리키면상흐기쉬출
지니명을보전흐야가느거시온당흐다츠야결란
코압흐로나아갈싸아와류이마조오는지라모양
이홍악흐야보기고약흐고무셔온지라원몸에비
늘이뚫고롱궤치늘리잇스며곰궤치발이잇고비
속에서불파연괴가나아오며입은스궤궤흔지라
괴독도의압흐로와셔경히녀이느모양으로보며

무려 졸으되 너는 어티로 오며 어티로 가느냐 괴독
도 | 졸으되 나는 장망성에 서서 나오느사름이라
거기는 모든 악한 것만 사하고로 순신으로 가라흐
노라 아귀 졸으되 네 말을 드르니 단명네 빅성이라
그사히 본디 내사이 오네가 그곳왕이라 빅성들이
다 나를 돕혀 님군이 라흐느니 만일 너를 쓸 곳 사업
스면 당장에 쳐 죽이 겠다 만은 내가 티우앗기 노라
괴독도 | 졸으되 내가 본디 네 빅성이 되엿터니 너
를 섬기기 티우어 령고 공이 만흐나 올흔 거시 아니
라 그런고로 내가 장성훈후로 브러 총명훈사름의
일을 비화후조흔 거슬엇으라흐야 스면을 바라보

엿스매 밍세코 춤성을 다 하고 겨호노니 만일이 제
비반호면 엿지 죄를 엿지 아니호겟느냐 마귀골으
디그러면 네 엿지호야 이제 나를 비반호느냐 시방
다시 나를 쓰르르 올지라도 내가 피히택이지 아니호
겟노라 괴독도 일골으 디내가 이전에 너를 섬긴 거
스미거호야 그릇함이 오지 금섬기느이는 전능호
신주 시너네가 만일 나를 못치 아니호겟노라 도주
셔셔 풀어주시리니 이전에 내가 네 악함을 순종호
엿셔도 주이셔사호섯느니라 사름을 해호느니 아파
룬아내너드려말호느니 우리 주를 믿우깃거호고
너를 조화호지 아니호노라 그국제와 구실과 전곡

파하인 파정스 례 내가 다 짓거 하느니 나 드려 다시
말하 지 말 나 나는 주의 종이니 절단코 그 룰 좃겠노
라 마 커 들으 티 네가 이 길 노가 면 여러 가지 어려움
을 보라 니 다시 생각 하 여라 너 희 주의 종이 내 죄
를 잊고 내 밥을 범 하 야 잘 죽은 이가 업고 몹시 죽은
이가 만흔 줄을 너 도 아는 거시 니 네 생각 에 그 룰 섬
기는 거시 나 룰 섬 기는 것 보다 더 나 흐 나 그 가와셔
제 종을 구원 하 야 원수의 손 에셔 버셔 나 게 흠을 보
지 못 하 였스 나 나는 충심으로 나 룰 섬 기는 사 례 이
너 희 주의 계 던 지 너 희 주의 종 의 계 던 지 잡 힘 이 되
면 내 가 힘을 다 하 고 계 프 룰 다 하 야 구원 하 야 내 는

니이거슨세상사름이다아는배라내가또너를구
하랴왔노라괴독도ㅣ결으되우리쥬이셔는죽각
에풍을구원하지아니하시고밧는므음이잇나업
나사협하심이오네말파곳치잘죽지못하다하느
거슬그풍들이다영광으로알고목전에고성을피
하랴하느거시소원이아니나라후세에복만벼라
면쥬이셔영광을엇어련스들파곳치강림하실때
에그풍들도영광을엇느니라마귀결으되네가네
쥬를섬김이임의신실치못하엿스니엇지상을벼
라리오괴독도ㅣ결으되무어시신실치못하냐마
귀결으되네가쳐음에셔나셔이길노오다가우울

내가 온디셔 거진 숨막히게 되었슬세네 짐을 쥬가
벗혀 주기를 기드릴 거시어 놀네가 조치 못흐 법으
로 벗스랴 흐엿고 또흐 조름을 람흐야 죄를 범흐야
문권을 일코 또두스저를 보고 도라 가랴 흐엿고 또
이길 노을 세네가 보고 드큰 일을 만일 생각흐면 흥
생명성만 구흐랴는 뜻시나 타나느니라 괴독도
클으타네 말이 또 참되나 또나의 다른 악함이 잇습
을 아지 못흐는도 다네가 네나라에 잇슬새에 악흐
것것거워흐기를 조흔음식 먹는것조치 녀엿더니
그 죄에 놀남이 되어 스스로 원망흐며 탄식흐다가
쥬씨셔 샵흐여 주심을 엿어스니 쥬는 믿음이지비

하샤사름의죄를샤하시느니라흐티그새에아과
륜이직시낮빛출변흐며대노흐야존으티나느너
희쥬의원슈이라그를법과빅성을원망흐느니네
가지금온거슨너를막으라흐이로라괴독도이존
으티너느조심하라내가제쥬의큰길가온티잇
스니이느거룩호길이라그런고로내가싱각흐야
보아라흐티아과륜이드리를버리고길을막아괴
독도를가지못하게흐야존으티내가이러흐거슬
무셔위흐지아니흐느니네참죽어보랴느냐내가
너를노아보내면뫼세코왕이되지아니호리네
명을업시호리라호고창으로가슴을찌르애괴독

도ㅣ쥬의방패로막아오황위티홍을면흐엿는지
라곳성신의보검을세여드니아과륜이달녀드러
오며창으로치니그창이번리긋흔지라괴독도ㅣ
비록힘을다흐야막으랴흐나머리와손과드러가
다상흐여점점뒤로를녀가니아과륜이씩씩압흐
로오는지라괴독도ㅣ다시정신을츠려서로되덕
홀서반일이 지나는지라원몸이상흐야괴력이거
위업셔지거늘아과륜이그형세를씩씩괴독도를
녀멋더리니괴독도ㅣ보검을노쳤는지라아과륜
이졸으되네지금내손에셔도망흐야나아가지못
흐리라흐고죽게늘으니괴독도ㅣ다시살물브라

지못할새에누가하느님의은혜를혜아렸스리오
아파류이손을드러쳐죽이고져할거늘기독도
손으로어로만져다시보검을차져가지고아파류
을떨으며골으티내원슈야나를거역지마라내가
비록너머졌스나다시너러나리라흐니아파류이
물너가느거동이중히상호호것호흔지라기독도
그형세를쓰르압흐로나아가며골으티우리를스
랑흐시는쥬의일홈으로너를이괴노라흐니아파
류이놀기를피고급히놀나가더라이거솔인흐야
클을지엿스니흐엿스디

살양노항에이보살한일이
아척척가당홀도소압해

마신점을다시배여
마귀를때망한배

하더라이싸흠이진실노무셔오니천히눈으로보
지못하고귀로듯지못하면저세히알수업소리라
아파툼의셔드논소리가룽의소리웃흔지라괴독
도|탄식하며즐거운모양이하나도업더니갈노
아파툼을떨녀상하게후후에야얼골에희식이잇
셔하늘을우리러보며클으디쥬녀나를구원하샤
스즈입에버셔나게하시고또아파툼을이과게하
시니그은혜가감샤하여이다하고성명나무납사
귀를뚫어상쳐에붓치니곳났는지라다시오괴하
고셔나셔거점다정을지나음예에너르나이길은

괴목도가 악귀를 만
나 괴도환다



스면이 넓고 구덩이가 잇고 캄캄하고 차매아 파를
을 맛나 싸호던 디보다 더 무섭더라 괴독도 | 여
니 르매 었던 사름들이 급히 마조오니 이 사름들은
가 남싸을 휘방호던 사름의 조손이라 괴독도 | 무
러 끌으 디 무삼일 노 급히 도로오는 나 디 답호 디 너
도 성명이 요긴호 거든 도로가 거 라 우리 도 가 다 가
도로 오 노 라 조곰 더 갖 더 면 이런 일을 네게 마 르 치
지도 못 할 번 호 었 노 라 괴독도 | 끌으 디 무삼일이
나 디 답호 디 우리 가 음예 가 온 디 거의 나 르 러 셔 요
형으로 우연히 압 흘 주 세 히 슬 퍼 보 고 위 험 호 곳 신
줄 알 고 급히 피 호 야 오 노 라 괴독도 | 무 러 끌으 디

무어슬보았느냐티답하디그쌍을보니스면이감
감하디리미망량과표룡과각석피물이잇고또피
이흐소리가스면으로니러나며홍상부르지지는
거시사름이형벌받는것갓고또사에셔검은구름
이니러나며음산하디운이홍상우희넋헛스매티
우무셔위락담상흔하게하니일우말노다하지못
하겟노라기독도ㅣ골으디너희말어비록이러하
나나는턴성으로가는사름이라기어히그리로지
나겟노라두사름이골으디그리로가라하면흔즈
가라우리는도로가겟노라하고셔나가는지라기
독도ㅣ다시길을갈서손에보검을들고원슈를맞

나거든 방비하라 하더라 이 음예 사이 처음부터
사지대 단하 험하라 하련에는 김흔개천이 잇스
니 조고 여러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가만히
속에 싸져 죽은 못시오 또 한편은 위티훈 슈령이
잇스니 비록 조흔 사름이라도 그 속에 싸지면 나
아오지 못하느 못시니 넷적에 대벽왕도 여러
싸졌슬 세전 능하신 주머셔 구하시지 아니
하엿더면 목이 죽엇슬 지라 괴독도
여기니 르러는 길도 험척하고 빛도
업셔 김흔개천을 피하기 어려운고
로 피로워 하고 또 저편 슈령에
싸질사야 좌우를 슬퍼보며
조심하야 어두운디를 당하면
홍상탄식하며 압홀

향하야 발을 들고도 감히 발자국을

더 라 음 베 디 방 중 간 에 디 옥 문 이 잇 는 디 글 /
기 가 나 아 오 며 피 이 흐 소 리 를 니 거 놀 기 독 도 | 보
고 스 스 로 생 각 하 디 내 이 제 었 지 하 면 조 흘 고 하 며
탄 식 하 야 즐 으 디 아 파 륜 을 맛 나 셔 는 보 검 으 로 막
앗 거 니 화 이 런 곳 술 당 하 여 는 보 검 이 쓸 디 업 도 다
하 고 보 검 을 집 에 싣 고 기 도 하 는 기 계 를 가 지 고 소
리 를 크 게 기 도 하 야 즐 으 디 우 리 주 여 내 령 혼 을 구
원 하 옴 소 셔 하 며 반 일 을 가 도 불 길 이 오 히 혀 압 흘
당 하 며 쪼 쳐 량 흐 소 리 도 나 고 사 람 의 발 자 취 소 리
도 어 지 러 히 들 니 는 지 라 기 독 도 | 생 각 하 디 요 물

의독도가 음의를 설다
하빛치 빛최다



의게 뵈혀 몸이 가루가 될까 하야 이런 놀나온 광경
을 보고 팔구리 나가더니 무슴소리 나는지라 번라
보니 홀세 귀신이 마조오거 놀괴 독도 | 도로 가랴
하다가 다시 생각하더니 내가 이제 음예서 출절반이
나오며 여러 위험할 곳슬 요형버셔 낫는디 또 이런
무셔 온곳에 너르릿도 다하고 죽기를 무릅쓰고 크
게 소리하야 곧으더니 주의 힘으로 가노니 너희
는 물너갈지어다 하니 귀신들이 감히 갖가지 오지
못하더라 괴독도 | 또 불응덩이 겹히 너르니 악귀
들이 마만히 뒤를 쓰르오며 하는님 비방하는 소리
로 온근히 귀에 들녀 흘니게 하니 괴독도 | 정신이

어지러워 제 소릴 지귀신의 소릴 지아지 못흐 켜는
지라이 거시 이전에 당흔 일보다 더 무셔 위스스로
싱각흐 디내가 본디 쥬를 공경흐 엿스니 이제 엿지
뉘방흐 리오흐고 걱정흐며 가더니 또 압희셔 사름
의 소릴 들녀 졸으 디내가 비록 이런 디로 갈지라도
흥흐고 험흐거 슬 무셔 위흐지 아나흐는 거스우리
쥬씨셔 나와코치 계심이 라흐거 늘 괴득도 | 듯고
세가 자갓거 울이 잇스니 첫재는 이런 곳에 도하는
넘밋는 사름이나흐나 뿐아나라 흠이 오들재는 저
사름이 이런 캄캄흐 디셔 근심흐여 도하는 남이코
치계시니 이러면 나흐고 도코치계시갓다 흠이오

셋재는그사름을느르가면작반흐리라함이러라
괴독도나아가며그사름을부르니그사름이듯
고도디답자아니함은저밭과다른사름이업는줄
알미러라오래지아니흐야하늘이복아오거늘거
독도나잇거흐야즈르디쥬셔셔어두은곳을변호
야서벽빛출문드섯도다호더니월신복으매어리
를도리켜온길을보니흐편에개천이오또흐편은
슈령인디중간에협척흐길이명백히보는지라셔
러요괴흐것파리디망량과교룡이그가온디잇스
디희가나매감히갓가히오지못호더라괴독도나
성경말씀을생각하니그말씀에닐넛스디쥬셔셔

침침하고 어둔 티물 변하야 광명하디 물 문드시고
그 길을 나 타 내 시 겿 다 하신 말 숨이 명 빅 하 다 하 며
여 러 어 려 온 티 물 지 나 위 험 하 거 슬 버 셔 남 을 성 각
하 고 일 비 일 희 하 야 쥬 의 은 덕 을 찬 양 하 더 라 음 예
길 이 절 반 은 위 험 하 고 절 반 은 대 단 히 널 혼 디 압 뒤
에 털 라 지 망 과 합 정 과 옥 노 와 각 식 사 례 해 하 는 불
견 이 마 득 하 였 스 매 감 감 흘 썬 에 는 인 명 이 만 히 상
홀 곳 시 오 히 가 쓰 되 조 심 하 야 갈 길 이 라 괴 득 도
성 경 말 숨 으 로 성 각 하 디 하 는 남 의 초 불 이 버 머 리
에 빛 최 엿 스 니 그 빛 창 로 가 리 라 하 고 홀 곳 에 너 르
나 사 례 의 신 례 가 잇 는 디 피 와 새 가 랑 자 하 야 후 불

의독도가 언쥬프
황을 지나가다



살와저도되고혹씨여저온전치못흐것도잇스나
이거스전에런로가던사름이만히해밧은거시라
귀독도ㅣ보아도누가해흐엿는지몰낫더니홀연
히압홀굽어보매미우장대흐고전장흐사름들이
그근처에잇스니흐나흔히살이오또흐나흔런쥬
교황패빅이라그두사름이세력을밋고포학흐일
을흐야여러성도를죽엿스매그씨와피가지원거
시라그씨에귀피흠을보니그연고를르즈세히알나
로다형살은죽은지오래고패빅은비록살앗스나
늘어귀력이업는지라이전간장홀씨에싸흠을조
화흐야원몸이상흐야지금손과발이셋셋흐야형

木

보를 잘 못 흐는 고로 흉상 동구만 직히 다 가 성도가
 지나 가면 눈섭을 거스리고 눈을 부릅뜨며 너를 갈
 고 손톱을 씹으며 잡지 못함을 한 흉선이 려라 괴독
 도 패빅이 동구에 안젓슴을 보고 믿음에 놀나 되
 패빅이 해하지는 못하고 놀내여 즐으되 너희를 불
 살와 죽이지 아니 하면 너희가 종사 회리치 아니하
 리라 하지 놀 괴독도 대답지 안코 낮 빛슬 평안히
 하고 천천히 지나가 매 해하지 못하더라 글을 지어
 노래 하여 즐으되

모음이 무서울 때
 소리를 높혀 보게
 살림에 잘 다스리나
 함정 과월라 디망

성도가 나쁜 인간에
 죄인들을 위함 일세

배움의 줄을 맺어 주라

흐더라 괴독도 | 가압흐로 향흐야 나아가더나
고리에 나르니 안리가 첫쳐압길이 되느니라
보매 진충이 압희가 거늘 크게 소리흐야 부르디거
괴잠간기 드리라 배동항코져흐노라 진충이 도라
보거늘 다시 부르디 천천이가라 배가 쓰르가 첫노
라 흐더진충이 곧으디 배명을 도망흐이 요긴흐니
엇지 지체흐리오 흐거늘 괴독도 | 이 말을 듣고
음에 분흐야 죽도록 쓰쿨석얼마 아나가셔 도로혀
진충보다 압섯스니 이거시 성경에 낼은 바 뒤섯던
사름이 변흐야 압선다 흐느리 치라 괴독도 | 그제

선종이 고쳐서
구원하다



야모음이 흡족하야 웃다가 잠간 조심치 아니하고
밋그려져 너머지개진충이 붓드리니 르켜 두사름
이동형하야 가며 길에서 본일을 피츠의 룬 흘서 괴
독도 | 진춤드려 말하디 배가 이제 그디 룬 쓰르 밋
춤거슬디 우깃거하느니 이거스하느님이 지시하
샤 우리들이 동형하게 하심이 니그은혜를 감사하
덕이 노라진춤이 끊으디 처음보터그디 와코치동
형하자하엿더니 나보다 못져셔 낫스개 흘수 업셔
흔조오노라 괴독도 | 끊으디 배가 장망성에서셔
남으로 보터그디 가멧철이나 더잇다셔 낫느나진
춤이 끊으디 오래잇지 못흘곳인 줄 알고 곳쓰르 환

노니그티셔난후에사름이다말흐디이곳시볼구
에련화에살와지리라흐더라괴독도ㅣ이상히녀
여무러글으디리웃사름들이파연그리말흐더냐
진충이글으디그러타잠간동안에인심이다변흐
야그리말흐더라괴독도ㅣ글으디그러면저희들
이다도망흐야나아와야올케놀웨녀만흔즈왔느
냐진충이글으디여러사름의말은다그리흐나단
단히밋지아니흐고베일을담론흐며우셔글으디
그길은열에아홉은죽고혹흐나히나사는길이라
흐더라그러나내가우리본성이이후에반드시련
화에살옴이된줄을밋느고로셀니왔노라괴독도

1. 끝으디 리웃사람중에 이천의 말을 하느니라
그나 진충이 끝으디 잇더라 내드르니 너를 쓰르우
올니 쓰지 잣다가 와다 하느니라 저는 짐의게 이런 말을
빗최지도 아니 하느니라 내 생각건디 제가 거기 싸져서
원몸에 진흙 칠 하엿슬 뜻 하더라 괴독도 1. 끝으디
그 곳사람들이 도로음을 보고 엿더 케덕이 더나진
충이 끝으디 무론 모인 하고 다 흠보며 업수히 념여
상종 하느니라 자업스니 내 생각에는 중도이 폐하거시
애초에 성의 아니 하것만 못 하슬 뜻 하더라 괴독도 1
끝으디 그 곳사람들이 이길 조화 하느니라 가업는디
왜 도로온 거슬 흠보더나 진충이 끝으디 사람들 이

말하디제가몸이약하야주의를덜치못하야반
복무쌍하느자이라하니또말하진디바른길을보
릿스니응당하느님이보응하시리라피독도아
으디그디가써나기전에이천과곳치말하지아니
하엿느나진출이즐으디힐길에서흐변맛났스나
제가붓그러워피하야다른길노가기로말하지못
하엿노라피독도아즐으디이천이이길노오다가
도라갓스니속담에닐으기를개가토하엿다가다
시먹고되아지가제몸을정히씨섯다가또진흙에
드러간다흙웃흔지라내가처음에생각하디제가
구원을엇엇가하엿더니이제는제성과곳치멸망

홀지라그런고로내불상히녀이노라진충이즌으
티내므옴에도그러흐나여괴오느거스하는님셔
서미리작형흐신연분이니변기치못흐느니라괴
독도ㅣ즌으티지금은이천의일을말홀거시업스
니우리일아나말흐자아마그티가길에서본일이
잇슬터이오또그중에이상흐거시잇셔갯스니형
컨디말흐라진충이즌으티그티는우을니에싸젓
다흐나나느그런위험흐도업시좁은문에니르렸
스나량부라흐느녀편네게전과를잡혀비록그그
몰을버셔났스나거위목숨을일홀번흐엇노라괴
독도ㅣ즌으티그게잡이녀를엇더케괴이더냐그

그물을 버셔 남이 만항이로다 넷적에 약슬도 그제집
의게 잡히여 비록 그 그물을 버셔 낫스나 거위 목숨
을 일흔 번 흐엿느니라 진흥이 곧으디 감언리설노
키에 듯기 조케 흐며 또 말흐디 저와 못차가 면여러
가지 쾌락 할 일을 다 주마흐더라 괴독도 이 곧으디
그디가 만일 지혜가 업던들 거괴셔 나아 오지 못할
번흐엿도다 그제집이네 믿음을 평안케 흐더냐 진
흥이 곧으디 그말이다 육신만 평안흐게 흐더라 괴
독도 이 곧으디 네가 미혹지아니 흐거손하느님의
은혜로다 성경에 날 벗스디 쥬셔셔 미워흐느사름
은밀연함 정에 싸지느해를 밧으리라 흐엿느니라

진충이 졸으되 그세에 홀일이 죄가 될년지아니 될
년지내 생각에는 알수업노라 괴독도 | 졸으되 그
러면네가 좃지아니 할엇다 말 할수가 업슬 뜻흐다
진충이 졸으되 좃지아니 할엇노라 내가 그세에 성
경말씀을 생각하니 음부의 집은 다 옥길이라 할엇
스매 그아름다운 용모가 나뉠미 후 할싸 무셔 위는
을 감으매 제가 나드려 육하기에 내가 급히 괴호야
왔노라 괴독도 | 졸으되 쓰무어 슬보앗는 나진충
이 졸으되 간난산 아래 나르러 셔 홀로 인을 맞나니
나드려 누구며 어되로 가는 나뉠기에 내가 되 답호
되 나느련로 가는 사름이니 순산을 차져가 노라호

티로인이 졸으티네 모양을보니 충후호사름이라
내공전을 줄거시니 나와함서잇스라느나흐기에
내가 무려 졸으티 존장은 누구시며 어느곳에 계시
닛가흐즉로인이티답흐티네성은인이오일흙은
구성이오별호노로아담이오흔미향에사노라흐
기에내또무려 졸으티무슴일을식이고무슴공전
을주랴시오흐즉로인이 졸으티네식일일은리우
쾌락흐일이오공전은나의세간을맛기랴흐노라
흐기에내가또무려 졸으티집에서먹느거스무어
시며스환은몇치닛가흐즉로인이 졸으티세상에
테일먹기조흔거시다내집에잇고스환은다내아

돌이라 하기에 내가 또 무르디지 떼가 떼치오 벗가
흐죽로 인이 곧으디 설서 희잇스니 하나 혼호식이
오흐나 혼람리 오또하나 혼고명이 라하기에 내삼
각건디 장가 들고져 하면 못허락 할뜻하야 또 무려
곧으디 열마나 못치오 래잇스오릿가 혼죽로 인이
곧으디 내성전 못치잇자 하디라 괴독도 1) 곧으디
그로 인이 그디 생각에 었디 하디나 진충이 곧으디
내가 처음에 그 말을 듯고 조할 뜻하야 못치가 라하
다가 그후 말 할썬에 그로 인에나 마를보니 글지를
삭엇스디 빛성정을 버리지 못할사름이라 하엿기
에 내가 성경뜻을 생각하니 그말슴에 날 벗스디 벗

일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하였기로 그로인을 사
르가지 아니 하였노라 괴독도 1 줄으되 잘 하였노
라 진충이 즐으되 그 말이 뜻기능 조흐나 만일 사르
가면 텅텅 그 좋이 될터인고로 아모리 여러 번 말하
여도 뜻지 아니 하였노라 이 사지 사되 내 말을 뜻지
아니 하면 티우 무셔 온 거 조가 잇소리라 하되 내가
몸을 도로 쳐가라 하니로 인히 힘써 나를 보듯 잡으매
피육이 대단히 압흔지라 내가 크게 소리 하며 썩로
치고 산 석닥이로 다라 날서 흔결반이 나을 나가서
뒤를 도라 보니 었던 사람이 성화 곳치 사르 오더니
텅저에 나르매 그 사람이 사르 올나 오더라 괴독도

1. 큰으디 나는 그 텅저에 안져 잠간 쉬며 졸음을 탐
하야 자다가 꿈가온디 빙거하는 문권을 일헛노라
진충이 큰으디 네 말을 굿치고 내 말을 드룬 후에 다
시말하라 나를 쓰르온 사람이 매압희 밋쳐 두말업
시나를 쳐서 죽제하는지라 정신을 차려 그 사람이 드
려 무르디 웨나를 치는냐 하니 그 사람이 디 답하디
네가 인 구성을 쓰르가라던 죄인이라 무슨 말을 하
느냐 하고 또 힘써 내가 숨을 치기로 내가 업디 저귀
절하엿다가 피어나셔 가련흔스정으로의 절하매
그 사람이 말하디 나는 스정이 업는 사람이 라고
치더니 요형흔 사람이 와서 만류하야 그 손에 버셔

나스니 그럿치 아니흐더면 색이 죽을 번흐엇노라
괴독도 | 졸으디 만류흐던 사람은 누구냐 진충이
졸으디 처음에 느아저 못흐엇더니 추후 그 손에 못
막혔던 흔적을 보고 구세준 줄 알앗노라 괴독도 |
졸으디 너를 따르던 사람은 마셔 | 니 평성에 사람
을 용서치 안코 그를 범을 범흐면 결단코 사흐자 아
니흐느니라 진충이 졸으디 네 말이 올토다 마셔가
셔릴 썩아니라 배가고향에 평안히 잇슬 때 도와셔
말흐더네 만일 여괴 잇고 다라나지 아니흐면 비집
파인 명갓지 불에 살흙을 닦으리라흐더라 그 사람
이 텅텅 마셔 | 로다 괴독도 | 졸으디 텅지를 지나

오다가 미궁이라 호는 집을 보지 못하였는나 진충
이 곧은 티 보았노라 괴독도 1 곧은 티 두스 자를 보
았는나 진충이 곧은 티 보았스나 나물해호지아니
호매내 생각에 세가 오시즘되여 희가 좁혔스매 자
느 줄알고 그 집을 지나 곳산으로 내려갔노라 괴독
도 1 곧은 티 문직한 사름이 너 지나 감을 보고 내게
말호기에 내가 너드려오지아니 흠을 티우섭섭히
녀엿더나라 그 집안에 조흔물 건이잇스니 네만일
드러와셔 구경호엿더면 성전흠모호는 믿음이잇
섯스리라 그러나 쏜네게 무를말이잇노니 거경디
경에서 맛난 사름이 업더나 진충이 곧은 티란 족이

라흐는 사람을 맛났스니 그 사람이 나를 권하야 저
와 함께 도라가자하며 졸으되 거 겸 셔흔 일홈을 구
호야 하야 니라 그리로 가면 여러 일가 교오와 조고
와 파부를 비반함이 오소 다른 사람들 도 밋 쳤다 하
리라 하더라 그 독도 1 졸으되 네 엿더 케 되 답하엿
느 나 진충이 졸으되 내 되 답하되 너 말하느 사람들
이 내 골육 진친이 나 내 가련 성에 가라 함으로 브러
저희들이 다 나를 조화아니 하느고 로나 도 저희와
못치 친하 지 아니 하고 남과 못치 성의 니 엿지 저희
를 밋 겁게 하리 오네 말이 거 겸 셔흔 일홈을 구호야
하야 니라 하니 그 말도 그르도 다 성경에 날 벗스되

먼저 낮고 겸손한 면 후에 존귀하고 먼저 교만하면
후에 패하는 나라 하였스니 내가 거경을 지나 가랴
홍은 장티 존귀함을 닦아 이 거시 유식한 사름
의 구하는 거시 오녀 말하는 존귀는 실상이 업는 거
시 나 내 가 그런 거슬 취하지 아니 한다 하였노라 괴
독도 이끌으되 거경 안에서 쓰무어 슬보았는 나진
총이 끌으되 치션이라 하는 사름이 잇스니 여러 사
름 중에 데 일착한 일을 부그러워하는 지라 다른 사
름들이 혹 도리 풀의 룬하며 말노저를 열니 우면 제
가 밀치지 못하니 아모 것도 못흔 사름이 더라 괴독
도 이끌으되 그 사름이 었더케 하더나 진총이 끌으

티하는 남의 절하는 것도 조치 못하다 하고 믿음 없
쥬를 섬기는 것도 귀히 녀기지 안 요 조심하고 삼가
악호 일을 일절 아니 하는 것도 믿음이나 약호야 능
히 못하며 하는 말이 만일 언어 횡위상에 너무 조심
하면 업미여 조곰도 움족이지 못할 때 세상 법과 다
른 즉 남의 게 조롱함이 되느니 네로 브러 지 금까지
세상에 권세 잇고 가멸고 총명하다 하는 사름들이
혹나러나서 남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혼미호리치
로 요망호 일만 구하며 세상에 조흔 쾌락호 일을 보
리느니 가잇느니 내보전 디련로 가느 사름들은
다 빈천하고 용렬호 사름이 오리치를 알며 학문이

널흔사름이업고또사름이도리롤듯고막음에감
동흐야란식흐며후회흐는거시도시붓그러운일
이오또사름이죄롤짓고후에그른줄알아도쓸티
업논일이오또가령불의의지물을써아사와다가
후에싱각흐고도로갓다줄도또흐붓그러운일이
라이길은빈천흐사름만가는길이라내저희와벗
흐기가엇지붓그럽지아니흐리오흐더라괴독도
1 줄으티치션이이러케말흐매네가엇더게티답
흐엿는나진충이줄으티내가처음에는티답흐기
어려워닐플이불고티덕지못흐다가후에싱각흐
매성경에닐넛스디세상사름의존중히녁이논거

로아당이진춤을
섞이다



스하는님의깃거하시지아니하는거시라하엿스
니만히생각하고디답하디네말하는거스다세
상에붓흐스욕이오하는님의도리는아니라심관
하시느날에는련하빅성들의영성형스를다주의
를범머로하실러이오사룸의뜻머로하지아니하
겟는고로주의말슴머로복종하는거시올코천만
인의말이다쓸디업느니하는님여셔는션도를조
화하샤밋는사룸을깃거하시느니이곳치빈천하
거스주를위하야빈천홈이니천션은물너가라너
는이도의원슈이라날노하야금주를비반하야구
원을엇지못하계하는도다내만일네말을드르면

주오실때에 퇴일 낮치 업스리니 주의 도리와 주의
백성을 붓그려 위하 면 엿지 구원을 엿으리 오 주씨
셔나를 붓그럽게 녀키 시면 너는 올라 하겠는 나하
니 제가가 지아니 하고 나를 붓잡고 귀에 다히고 말
하디 하는 님의 도리를 좃는 거시 붓그려 오니라 하
거늘 내가 저드러 낼으디 네가 이 처럼 여려 말하 면
이느 하는 님서 억지 쓰는 모양이라 네게는 붓그려
오나 내게는 영화로 온 일이라 하니 제가 엿지 할수
업셔가 디라 쓰내가 거슬인 하야 글을 지여 큰으
디

백성 중이 나를 향하여 새 로움을 가뵈는 도록

혈사경으로 용이하는 번개은
몸과 육을 남해한지 말나

영아 혼을 못 구하면
조심으로 할지이다

특한 신을 과하여라

흐엿노라 괴독도 | 졸으디그디가 능히 모진 거슬
제어 흐엿스니 과연 상쾌흐도 다 저희가 일성우리
로흐여 금얼막이 게흐야 주의 도리를 슈치흐게흐
니 저희가 붓그러 위아니 할거시 붓그러 위흐도 다
치션곳흔이 잇스면 우리가 능히 제어 흐리라 주의
성경에 널녓스디 누구던지 나와 나의 도리를 붓그
러 위흐면 내 가우리아 바지 영광으로련스 들을거
느리고 느려갈새에 그 사름을 붓그럽게 흐리라

섯느니라 전충이 곧으디 주시셔 우리들 노예상에
셔도를 힘써 전하게 하다가 치션 곳 혼사 립을 만나
면 주며셔 구원하야 이과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할
지니라 괴독도 곧으디 올라 거점사에셔 또 무어
슬보았느냐 전충이 곧으디 본거스 업스나 혼태양
이잇셔 거점을 지나 쓰음에 싸으로 지나가더라 괴
독도 곧으디 그거사 만항이로다 나본 것파 곳지
아니 하다 내가 거점을 지나 썬에 마귀를 만나니 일
힘은 아파 른이라 나를 치고 저하매 그 모양이 리우
무셔 온지라 나를 함부로 치며 힘써 눌우매 거위 죽
을다 정이라 쓰손에 드러턴보 검을 못치고 로그손

에버셔날수업셔아무리성각하디죽엇는지라그
썤에하느님씨기도하느님이나를불상히뵈
이샤이런환란을버셔나게하시고또그후에음에
롤지나매그길이캄캄히어두운지라내가여러번
어려움을당하야죽을번하엿다가중로에니르렀
셔야히빛슬보고그후브러야점점모음을노앗노
라하더라이썤에호사름을맛나니일흠은순도
라길젓흐로지나가니그길이원리널녀려사름
이버러서셔헹하느니라그사름이귀는크되몸은
가느러멀니보면준슈하듯하나갓가히보면틀니
더라진충이존스디어디로가는나순도존스디

순산으로 가노라 진총이 곧으디 그러면 조타우라
동행하자 하니 순도 일곧으디 내역시 조화하노라
진총이 곧으디 길에서 유익호일이 나의론하자 순
도 일곧으디 무론 누구던 지을 온말하느거슬 내평
생 조화하더니 련행으로 그디를 만나 매이런말씀
을 하시니 미우 조화하노라 길가는 사롬들이 이런
일을 조화하느니 가적으매 한담만하느 사롬을 맞
나면 근심스럽더라 진총이 곧으디 그런 사롬들은
가셔 하도다 입과 혀가 잇스면 하느님의 도리를 말
하느거시 올하니라 순도 일곧으디 그디말이 유리
하니 미우 명심하노라 하느님의 도리를 의론하느

거시유의호고모음도식원호지라성경에호선말
숨이만물에러력파괴이호스정과오묘호도리와
이상호징표가다른글보다더만호니말출슈록점
점조미잇고문리가혼후호니사룸의모음을괘락
호게호글이러라진총이존스디네말이올타그도
리롤의론호느거시사룸의몸에유의호니라순도
존스디그도리가티우사룸의몸에유의호거시
니일정보면문견이널녀세상의셔변화호느리치
와런국복록을주세히셔다라아느니사룸이부성
호년후에야런국에나아가는것과제몽로만잇으
면죄를샤호지못호고슈물밋어야의리에합당호

것과 또 쥬를 밋고 죄를 뉘웃쳐 기도하며 환란을 참
노 도리를 쇼쇼히 기록하였사니 이런 리치를 명심
하지 아니하면 복음서를 엮지 알나오 또 참도리
를 나라내여이 단지도를 변박하야 우몽한 사람을
막르치면 저희가 엮지 밋지 안켓는 나진 총이 곧으
디네 말이 유리한도 다 순도 1 곧으디가 석하 다 세
상 사람이 여도리를 강론치 아니하는 고로 괴독 밋
을 줄을 아지 못하고 또 성신이 감화하되 아니하야
영성을 엮지 못하고 이혹한 믿음으로 저 괴몽로 만
밋으니 그리하고 엮지런 국에 나르리 오진 총이 곧
으디하노 님서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그리

치를 명백히 알지니 그러치 아니하면 아모리 부조
런히 회오나아지 못하느니라 순도 1 곧으디 그 말
슴이 성경에 널녓스디 이거시 하느니라 노셔느려준거
시오 사람의 힘으로느하지 못하거시니라 하섯고
또 널녓스디 이거시 모도는혜로 주신거시오 사람
의 공로를 위하야 준거시 아니라 하섯스니 이 말슴
은 다 성경에 증거 하섯느니라 진함이 곧으디 이제
우리들이 그런 말을 의론하자 순도 1 곧으디 그디
가 이처럼 권하니 내여러가지도 목을 배푸려들니
리라 대저 연문과 다리와 법들과 복음과 성도의 형
적과 세속 사람의 소경과 고금리력과 타국일과 본

국일과 처음과 나종을 다 담론하는 거시 유의 흘뜻
한다 하니 진충이 그 말을 듣고 별사름이라 하더라
이새에 괴독도 이 혼저가 더니 진충이 그 압흐로가
셔말하디 우리와 못처가는 사름은 실노히 알테니
성각전디련로로가는 길을 똑똑이 알니라 괴독도
그 말을 듣고 우스며 곧 이디저기서로 오는 그 사름
을 조화하는 냐 그 말하는 거시 합의 하더 냐 네가 그
사름을 아지 못하야 오할하고 공교한 말에 속은 모
양이로다 진충이 곧 이디가 그 사름을 아는 냐
괴독도 이 곧 이디아노라 제가 저를 속일지언 덩나
는 속이지 못하리라 진충이 곧 이디엇더하사름이

柳樹



나귀독도 | 풀으디그사름은순도 | 니우리고향
사름이라녀는아지못할것는나아마도싸히널고
사름이만흔고로녀는아지못할는도다진충이존
으디뉘아돌이며어는곳증사는나귀독도 | 풀으
디능언의아몰이라본디평론싸에살았스나사름
들이다아는나라네비록그말을드렸스나살노히
조치하니흐사름이니라진충이존으디내그사름
의말을드르니준슈할더라귀독도 | 풀으디잘못
알았다것흐로보기에는조흔것맞흐나니속히지
베보면조치못하니그림맞흐여얼나셔보면그럴
듯흐나갓가히보면아니나라진충이존으디네가

이러듯우스니네생각에는놀기나흐사름이라하
느냐괴독도ㅣ골으디내웃는거손이일이우습다
흠이라네그사름을저세히알고저흐면내말을드
르라순도는무심일을말흐던지사름을괴이라하
지도안코도모지순편히만가니이제너드려흐말
은스세가그러흐뜻흐다마는이사름이원리술집
에가셔저담두어마디흐고술잔이나엇어먹은후
에흥치가나셔니야기틀더욱잘흐되제집에서는
흐는일과모음하하는님을공정흐는모양이조곰
도업고말노만빛출내느니라진충이골으디그러
면내가잘못알앗도다괴독도ㅣ골으디그러하니

라속담에날벗스디말은잘흐면셔그대로형호지
는못흐다흐니이런사름을두고호말이라성각호
야보아라련국은말잘흐는디잇지아니호고형호
는디잇는니제말노는회기호는것과쥬를밋는것
파기도호는것과부성호는리치를안다흐나입으
로만말호를썩이라내가그집에가셔안팎클즈세히
보니죄들뉘웃고쥬를섬기며기도호는거시일결
업스되그증성들은본분을직히니제게비호면도
로혀올러라형스가조치못호하하는님도를해롭
게호고거룩호일을욕되게하니성중사름들이말
호디순도는성도이라호되기실은마귀라그집사

롬들도 아느니 원리 사롬의게 각 박히 굴여 쓰기 품
이 조화 무고히 성내니 무론 모인하고 저와 못치 일
이던지 말이던지 서로 홀수업다 함여다 말하되 저
사롬과 티매하지 말고 세속 사롬과 티매함이 낫다
하니 세속 사롬은 순도의게 비하면 도로혀 믿음
공변되도다 순도는 귀회를 보면 속이고 세아슬 믿
음을 버리며 범어스에 취편하랴고만 하고 제아들드
려 제 모양을 하라하되 그 지식은 여간량심이 잇서
믿음의 불순함이 잇스면 도로혀 잔하되 더욱 하야
저 조업고 일을 몰나 제 지식의게 하느말이 다른사
롬압희셔 ~~하~~ 하지아니 하다 하니 배짐작에느순

도의언어와 형위가 남의게서 해롭게 하도 다만
일하는 남서서 종시 도라보시지 아니하면 후에 사
롬을 더욱 해하라 하니 진충이 졸으디 그디는 괴
독의테저라 그사롬의실정도 저세히알썬터려
의론하는 거시 공변되고 거츠시 업는 줄아노라 괴
독도 졸으디나도 그디곳치 그사롬을 지내보지
못하녜터면이 썩어지조흔사롬인줄알아겟노라
내눈으로본거시오 남의말듯고 비방하는 거시아
니라 후디 친충이 졸으디 그러면 성도의말만 알고
형위는 업는지라 내처음에말만듯고 형위를 밋었
더니 이제는 그말하던 거슬듯고 형위를 생각하겟

노라 과독도 일뿐으되 언어만 잇고 형위가 업는 거
사마치신례만 잇고령 혼업는 것갓흐니 영혼이 업
셔지면 몸은 죽는 거시라 하는 님공경흐는 거스 입
과 혀의 잇지 아니흐고 실노히 형흐는 되잇는니 성
경에 널넛스되 아비업는 사람과 과부와 환란 만난
사람을 보면 구급하여 주고 또 제 몸을 삼가 직혀 세
속에 더러움을 밋지 아니하여야 하는 님셔셔 보시
고서 굿흐고 정성되게 섬가는 사람이 라하시리라
하엿는니 순도논그런 줄은 아지 못흐고 귀로 도리
를 드르며 입으로도 리를 말하며 성인의 테 존례하
는 거시 제가 저를 속임이니 가령 도를 뜻는 사람을

비유하면 조흔종조호여 마음속에 잇는 나 말노
만하면 공을 일우지 못하고 인어와 횡위가 서로 합
호연 후에 야공을 일우는 나 심판하는 날에 너러
각 사람의 횡위대로 상별을 명하샤 티우리 중도리
를 아는 사람이던지 아지 못하는 사람이던지 횡호
실상을 슬피 죄를 명하시리니 성경에 날 벗사 티버
비는 것조호니 열미 열니며 아니 불니는 거슬나타
버리라 호섯사니 순도와 호사 롱은 거와 조치
리시느니라 진총이 졸스 티네 말을 듣고 생각호니
마셔 료법의 날 벗사 티고는 짐성에 씨곳호며 씨곳
지 못호거슬 분별호티 족이 같나 지고 삭임질호여

야씨굿흐거시오그러쳐아나흐면씨굿지못흐거
시라도씨는삭임질은흐되족이갈나지지아나흐
고로씨굿지못흐다흐느니순도가비록올흔도리
를말흐되악흐거슬변리지못흐니이느삭임질만
흐고족이갈나시지아나흐이로도다괴독도ㅣ끓으
디네말이올타성경에쓰비유말숨이잇스나보
라가순도굿흐사름을의론흐야끓으디이느라발
깁중굿흐니소리만잇고활동흐느괴운이업다흐
엇스니사름이성신감화흐야회기흐야밋지아나
흐고말저조로만도를견흐느거시마치소리만잇
고활동흐느괴운이업는것스스흐이라엇지구원을

엇어하늘에올나가는사름과작반하리오호엇는
나라진충이즈으디내처음에는그사름을조히녀
엇디니이제노내조화아니호노니엇지호면셰여
별릴고괴독도ㅣ즈으디하는님셔셔종시회괴식
혀주지아니호시면녀와맛서지도아셔호리라진
충이즈으디엇지함이냐괴독도ㅣ즈으디그디가
순도를보고하는님의권능을명백히변론호야일
호도차착이엄시호며그모음과형위를슬권후에
또대집의셔도이런빙거잇는야무르라호니진충
이순도를셔르가셔닐녀즈으디저간명안호나순
도ㅣ즈으디잘잇노라내성각에그디가벌셔와셔

니야기만히호자고호출알앗노라진충이곧으되
그러하면이제말호자네게무를거시잇스나되답
호라하느님여셔구원호는은혜가만일사룸의므
음속에잇스면엇더케나타나느나순도ㅣ곧으되
그러면권능을니야기호자느야리우조라내되답
호말이잇노라만일하느님의은혜가사룸의속에
잇스면크게소리호야죄를부지리라호고또말
호라호거늘진충이곧으되두말말나그러치하나
호니라대져사룸이저죄를통한히복이느거시
성신감화함이나라순도ㅣ곧으되그러면죄를부
짓는거시나죄를통한히복이느거시나무심분간

부 자 는 거 손 님 의 게 나 라 버 여 알 게 함 의 호 속 으 로
통 한 히 녁 이 는 거 손 어 진 무 음 으 로 나 아 오 는 거 시
라 버 가 전 에 전 도 라 호 는 사 름 의 말 을 드 르 니 도 록
전 호 썬 에 는 죄 를 투 하 지 져 스 나 집 에 서 무 심 일 을 호
썬 에 는 죄 를 통 한 히 녁 일 무 음 이 적 다 호 더 라 밧 적
에 약 슬 의 주 인 더 편 네 가 크 게 소 리 호 고 리 우 석 곳
호 모 양 꾀 호 되 그 실 상 은 약 슬 과 꾀 처 더 러 온 일 을
호 고 쥘 함 이 라 사 름 들 의 죄 무 짓 는 거 시 비 칸 더 어
미 가 어 린 자 식 을 입 으 로 는 욱 호 되 손 으 로 어 루 만
지 며 입 맛 초 는 것 호 호 니 라 순 도 일 으 더 네 가 버

